

제83회 전북사학회 학술연구발표회

- 주 관 : 전북사학회
- 주 최 : 전북사학회
- 발표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2시~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2021. 12. 4.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제83회 전북사학 학술연구발표회

- 주 관 : 전북사학회
- 주 최 : 전북사학회
- 발표일시 : 2021년 12월 4일(토) 오후 2시~
- 발표장소 : 줌 화상회의

<https://zoom.us/j/93262054183?pwd=NkM1amlCem1VaCszVDMvazVna3ExZz09>

회의 ID: 932 6205 4183

암호: 1234

- 발표순서

사회 : 이정욱(전주대)

- 주제 1. 마한분규묘와 주구토광묘의 비교로 본 개념과 계통성..... 5쪽
 - 발표 : 김중엽, 원광대학교
 - 토론 : 남호현,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주제 2.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 37쪽
 - 발표 : 홍창우, 전남대학교
 - 토론 : 강문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 공지사항

회원분들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가 변경되신 분은 전북사학회 메일 (jha-mail@naver.com)로 연락해 주셔야 학회의 다양한 소식과 학회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한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비교로 본 개념과 계통성

김중엽(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I. 머리말

마한을 크게 기원전과 후로 구분해보면, 기원후 마한을 대표하는 묘제로는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묘제를 중심으로 마한 영역은 각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데, 대체로 분구묘는 서해안을 따라 저평한 구릉과 평지 일대에 주로 분포하면서 경기 지역부터 호남 지역까지 길쭉한 형태의 분구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주구토광묘 문화권은 아산만을 따라 아산-천안-청주로 연결되는 충청 내륙과 주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구묘 분포권에 비해 좁고 밀집된 분포양상을 띠고 있다. 1990년~2000년대 분구묘와 주구토광묘가 처음 조사되던 당시에는 방형의 주구와 구별되는 눈썹형의 경사면 위에 형성된 주구의 차이와 매장시설의 잔존 상태에 따라 두 묘제를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졌으나 근래 분묘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따라 묘제를 구별해내는 것이 어려워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하여 논의되는 두 묘제의 구분과 개념의 적합성, 그리고 계통과 관련해서는 다소 혼동을 일으키며,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54국 마한의 다양성과 역동성 속에서 묘제를 개념화하여 계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마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대표성을 보이는 두 묘제를 중심으로 기존 논의된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세부 비교를 통해 분구묘의 개념과 계통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일단 분구묘 중 적석분구묘는 성토분구묘와는 문화양상과 분포권이 다르며, 아직 마한의 영역 속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제외하며, 충청 아산만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주구토광묘와 토광묘는 동일한 문화권에 어우러져 분포하며, 현재로서 계통성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본 고에서는 일단 분구묘의 비교 대상으로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구)토광묘로 통칭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주구토광묘와 토광묘를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용어를 구분하도록 하겠다.¹⁾

1) 주구토광묘와 토광묘의 용어 중 포괄적인 개념은 토광묘이지만 본고에서 분구묘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구 초창

II. 마한 분구묘의 개념과 변화

1. 분구묘의 기존 개념

국내에서 분구묘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분구묘는 처음 일본에서 1977년 곤도요시로(近藤義郎)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방형주구묘(周溝墓), 대상묘(台狀墓)와 달리 성토하여 묘역을 구획 형성한 묘제로 고분출현의 이전단계, 방형주구묘와 고분 사이 단계의 묘제로 인식하였다(近藤義郎 1977). 쓰데히로시는 성토된 분구를 가진 무덤을 분구묘로 보고 방형주구묘와 고분도 분구묘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분구의 높이에 따라 저총계와 고총계로 구분하고 저총계는 저분구묘와 저총고분으로 고총계는 전방후원분·전방후방분·원분·방분과 고총분구묘로 분류하였다(都出比呂志 1986). 국내에서는 1984년 강인구가 분구묘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나 일본과는 다른 의미로 적용하였으며, 분구묘 범주 속에 토축묘의 개념을 분구 중에 매장시설이 위치한다는 특징으로 정의하면서, 현재 분구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姜仁求 1984, 2~5쪽). 이러한 분구묘 용어의 사용은 한반도 내 고대 국가의 고분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염두에 두고 개념화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2000년도에 이성주는 『분구묘의 인식』이라는 논문을 통해 삼국시대 고분문화를 분묘축조 관념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장기지속적인 전통으로 구분된다고 파악하였고 이것이 매장 관념상으로 봉토분과 분구묘로 구분하면서, 분구묘와 봉토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분구묘는 미리 석축하거나 성토하여 분구를 조성한 후 분구 중에 매장시설을 축조하여 넣는 것으로 선분구후매장의 축조원리가 작용하며, 봉토분은 먼저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뒤 그것을 밀봉하기 위해 봉분을 쌓아 올리는 선매장후봉토의 축조원리로 규정하고 있다(이성주 2000). 국내에서 분구묘 용어의 본격적인 사용은 이 논문을 통해 제시된 분구묘의 명확한 개념정리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묘제의 개념화와 구분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보령 관창리(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1997)의 방형 주구묘와 천안 청당동(국립중앙박물관 1995), 청주 송절동(백제문화연구개발원 1995) 유적을 대표로 하는 주구토광묘의 상호비교를 통해 개념에 관해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구묘의 대다수는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거나 얇은 깊이로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되는데, 이는 매장시설이 분구 중 혹은 지상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앞서 개념화한 분구묘의 매장 관념과 동일하다 볼 수 있다. 주구토광묘는 주구묘와 같이 주구가 존재하지만, 매장시설이 일정 깊이로 뚜렷하게 확인되면서 매장 관념상 봉토분과 연결할 수 있다. 2006년 『분구묘·분구식 고분의 신자료와 백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연구자간에 주구묘는 분구묘와 동일한 매장 관념과 축조원리임을 공감하면서 이전까지는 주구묘와 분구묘를 분리하여 사용해오다가 이를 계기로 주구묘보다는 분구묘 용어를 통칭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기부터 비교 대상이었던 주구토광묘 용어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용어를 따로 병기하여 설명하기에는 서술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2. 분구묘 개념의 변화와 확장

1990년대 후반 분묘자료가 급증하던 시기와 맞물려 함평 만가촌(전남대학교 박물관 2004)과 익산 울촌리(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2) 그리고 천안 두정동(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나주 용호 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등에서는 높이 2m 내의 낮은 분구가 잔존하는 분묘형태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구묘의 원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저분구묘 자료가 등장하게 되면서 같은 매장관념을 가지는 주구묘와 분구묘 용어를 통칭하자는 견해도 제시된다(임영진 2002, 56~57쪽). 용어에 대한 문제는 2006년 『분구묘·분구식 고분의 신자료와 백제』란 주제로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다만, 주구묘와 분구묘의 관계에서는 같은 매장관념과 축조원리임을 공감하고 주구묘가 온전히 남아있었다면 분구가 존재했을 것으로 파악하여 분구묘 용어를 사용하자는 데에는 연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당시 조사 중이던 서산 부장리(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서산 해미읍 기지리(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완주 상운리 분구묘(전북대학교박물관 2010)의 조사현황보고도 이루어졌는데 완주 상운리 분구묘는 선분구 후매장의 축조과정이 그대로 나타나지만, 서산 부장리 5호분의 경우 매장주체부가 먼저 조성되는 양상(이 훈 2006, 24~26쪽), 서산 기지리는 지표면을 약간만 굴착 혹은 정지하여 목관을 안치한 후 분구를 동시에 덮는 양상 등이 확인(이남석 2006, 43~45쪽)되면서 기존의 선분구 후매장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²⁾ 이후 연구에서도 선분구-후매장의 기존 개념을 그대로 고수하는 견해(최완규 2006, 9~10쪽)와 함께, 기존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확장한 견해들이 확인된다. 김승욱과 이택구는 완주 상운리 분구묘의 예로 볼 때, 되파기를 통해 매장시설의 깊이가 깊게 조성되면서 성토면 일부의 굴착이 확인되는 점을 들어 현재, 남아있는 얇은 토광의 흔적은 선분구-후매장의 축조방법에서 남겨진 것으로 파악하고 선분구-후매장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원래 분구묘의 개념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김승욱 2011, 132~133쪽; 이택구 2008, 50~51쪽). 기존 분구묘의 개념을 확장하는 견해를 살펴보면, 김낙중은 분구묘의 개념을 臺狀地形利用 地上志向型, 墳墓同時型, 墳丘先行型으로 구분하면서 첫 번째는 매장시설 일부가 지하에 조성되더라도 주변 지형에 비해 높은 지점에 위치하여 성토 분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며, 주구를 돌리고 매장시설의 설치 순서가 동시성과 후행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분구묘의 축조과정을 구분하여 기존 개념을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김낙중 2006, 358~360쪽). 임영진은 기존 개념을 확장하면서 “매장주체부가 지하의 토광이 아니라 지상의 분구에 위치하는 무덤”으로 정의하고 분구묘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시신의 안치 위치가 지상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임영진 2015, 4~5쪽). 이남석도 서산 기지리 분구묘의 축조방법이 약간의 굴착이나 정리를 통해 매장시설을 놓고 동시에 분구를 성토하는 동시성토 임을 강조하면서 분구묘의 또 다른 개념을 제시하였으며(이남석 2011, 116~117쪽), 한옥민은 영산강 유역 고분의 축조과정 연구를 통해서 영산강유역 제형분이 되파기가 아닌 매장시설이 놓일 위치를 정리 및 약간 굴착한 후 주변의 준비된 성토재로 동시 성토가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한옥민 2016, 112~114쪽). 이러한 분구묘의 개념 확장 및 재고에 관한 연구는 분구묘의 자료가 2000년 개념화될 때와 비교해서 상당량 증가하였고 분구묘로 지칭되는 모든 분묘가 일

2) 보고자들은 분구묘의 개념을 지상에 위치해야하며, 분구를 완성한 후 되파기를 해야하는 규정 속에 유적을 대입하였으나,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하여 살펴보면, 선분구-후매장 분구묘의 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를적인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분구묘 매장관념에 있어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분구묘 개념에 관한 고찰

분구묘는 서해안을 따라 분포되며, 경기부터 전남 해안 지역까지 분포 범위가 매우 넓고 『삼국지 위서동이전』 문헌기록 속 50여국의 정치체가 마한을 구성하고 있었던 만큼 동일한 형태의 분구묘가 조성되기 보다는 지역적 차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차이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분구묘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분구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나 전남지역의 분구묘 모두 일관성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 시작점 및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분구묘의 발전과정에서 보이는 수직·수평의 확장과정 및 다장적 요소는 분구묘의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지만, 미리 분구를 조성한 이후 매장시설이 시설된다는 점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분구묘의 예는 분구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구묘의 축조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른 단계와 늦은 단계의 것의 상호 비교도 필요하다.

Ⅲ. 분구묘 유적을 통해 본 축조과정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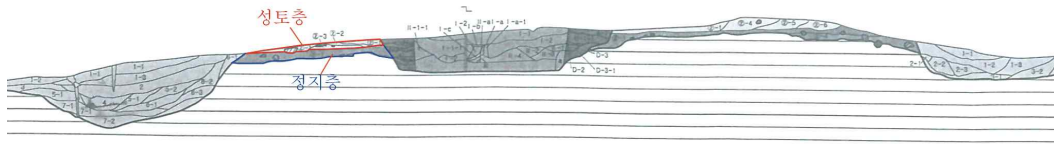
1. 분구묘 유적 검토

분구가 잔존하는 다수의 분구묘 유적이 있지만, 그 중 기존 분구묘 개념에 벗어나는 양상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매장시설의 깊이가 성토층 아래까지 깊게 나타난다거나 일부 성토 후 매장시설이 조성되고 이후 성토를 통해 분구가 완성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1) 김포 운양동 분구묘(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6호와 30호묘에서 알게 잔존하는 분구가 확인되었다. 6호묘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분구의 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남-북 11m, 동-서 9.5m이고 성토층 잔존높이는 30cm, 구지표 정지층 5~20cm이다. 구지표 정지층은 흑갈색사질토로 편평하게 정지하였고, 일부 토기편이 확인되면서 제의행위 가능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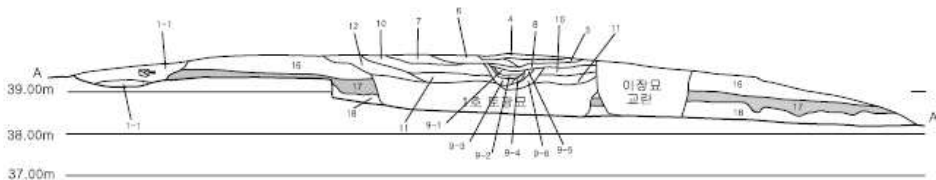
하고 있다. 성토층은 적갈색사질점토와 황색점토로 구성되는데, 적갈색사질점토는 주변 흙과 동일한데, 황색점토는 곱고 치밀하면서 매장시설의 주변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매장주체시설은 황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깊이 60cm 굴착하였다. 기반토와 묘광 바닥의 깊이 차는 30cm 정도로 분구가 잔존하지 않은 주변 분구묘의 매장주체시설 잔존깊이와 비슷하다. 묘광은 넓고 사선으로 굴착되었다. 30호묘도 구지표 정지층과 성토층이 일부 범위에 잔존하며, 잔존두께는 20cm 정도이다. 매장주체시설은 이 성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운양동은 그 위로 성토층이 잔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높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1> 김포 운양동 6호묘 축조양상

2) 서산 부장리 분구묘(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구릉의 정상부와 북서사면일원에서 총 13기의 분구묘가 확인되었다. 그 중 5호분은 매장주체시설이 깊게 확인되면서 생토면 아래까지 굴착이 이루어져 있어 분구묘의 기존 개념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분구묘의 규모는 북동-남서 19m, 북서-남동 14m 이며, 잔존높이는 구지표 정지층에서 90cm 정도이다. 구지표 정지층 위로 45cm 정도의 적갈색사질점토 성토층이 확인되는데, 묘광은 그 성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묘광의 깊이는 104cm 정도 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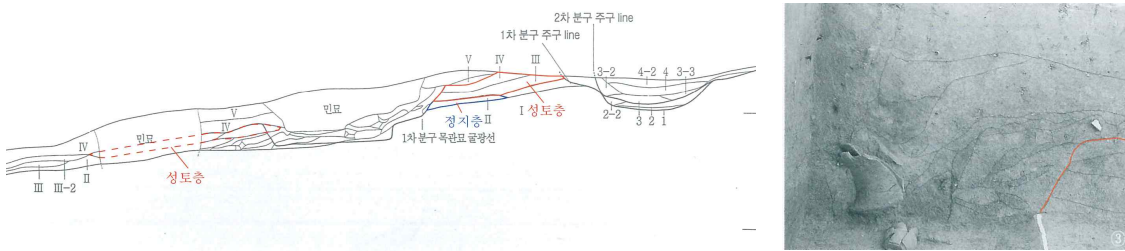
<도면 2> 서산 부장리 5호묘 축조양상

3) 서산 해미읍 기지리 분구묘(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해발 20~25m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의 정상부 및 남사면부에 조성되며, 총 46기의 분구묘가 확인되었다. 분구가 어느 정도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대체로 조성방법은 구지표 정지층을 약간 정리하듯이 굴착하여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주변과 그 위로 동시 성토가 이루어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분구에 대한 토층도면이 수록되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사진을 볼 때, 확실하게 구지표 정지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정지층이 그 위로 조성된 상태였는지는 현재로서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1호·2호분구묘에서 구지표 정지층 위에 얇은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층을 파고 조성된 것처럼 확인된다.

4) 나주 용호 고분(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해발 14~20m 내외의 완만한 구릉 정상부 및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총 19기의 분구묘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분구가 잔존하는 경우는 12호·13호·14호·16호·17호이다. 형태는 장제형에 가깝고 12호분은 1차 분구 규모는 25.5m, 너비 10.35m이고 7.6m 정도 길게 수평확장 되었다. 목관묘는 가장 분구가 양호하게 잔존하는 곳에 조성되었는데, 정지층과 그 위 성토층을 사선으로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위로 옹관묘가 중복되었다. 옹관묘까지 조성된 후에 전반적인 성토를 통해 분구가 완성되고 있다. 17호분도 12호와 비슷한 양상으로 일부 성토층을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하였는데, 토층의 단절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명확하게 굴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도면 3> 나주 용호 12호묘 매장주체시설 축조양상

5) 영암 신연리 9호분(국립광주박물관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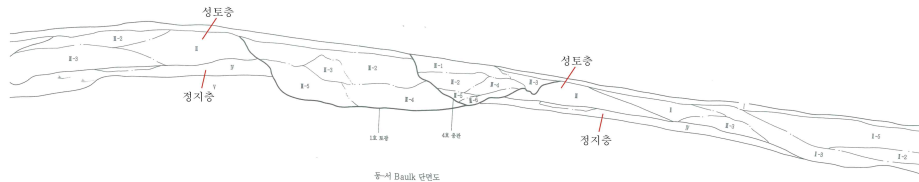
신연리 9호분은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구는 장방형을 띠고 있다. 장축은 북동-남서 19m, 북서-남동 16m이다. 분구의 높이는 최대 2m정도이다. 전반적인 토층양상은 표토층-황갈색사질토층-적황색사질토층-황적색사질토층-회갈색 점토층-생토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회갈색점토층이 구지표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총 7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되었고 목곽묘 3기, 옹관묘 4기가 조성되었다. 목곽묘는 성토층인 황갈색사질토를 굴착해서 조성하였고 4호 목곽묘는 깊이가 102cm, 5호 목곽묘는 70~100cm로 깊은 편이다.



<도면 4> 영암 신연리 9호분 매장시설 축조양상

6) 무안 인평 고분군(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산 사면부 중간지점에서 낮게 솟아오른 대지에 위치하며, 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다. 분구는 동-서 13m, 남-북 11m 정도로 높이는 구지표 정지층에서 50cm 정도이다. 분구의 중앙에 위치하는 토광묘는 성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토광묘의 바닥은 생토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묘광의 최대 깊이는 지표에서 약 8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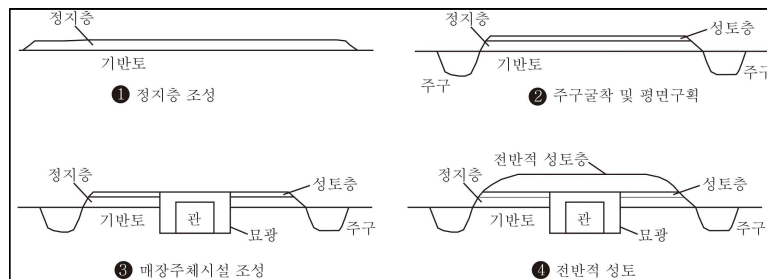


<도면 5> 무안 인평 고분 매장주체시설 축조양상

2. 분구묘의 축조과정 검토

분구묘의 축조과정 검토는 앞서 언급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선분구-후매장이라는 기본적 매장관념에 어긋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구묘의 본질적인 매장관념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앞서 살펴본 분구묘의 축조는 몇 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대지조성-구지표 정지 및 삭토 또는 정지층 조성
- ② 주구굴착 및 성토부 조성 - 평면형태를 결정, 묘역 조성, 낮은 성토
- ③ 매장주체시설 안치- 성토부 또는 정지층을 굴착하여 매장주체시설 안치
- ④ 매장주체시설 성토 및 전반적 분구성토



<도면 6> 분구묘 축조과정 모식도

먼저 ①의 구지표 정지 및 정지층 조성은 분구묘의 축조에 있어 가장 하층에 존재하고 있는 회색 또는 흑색계열의 점질토층을 의미한다. 일부 보고자는 과거 조성당시의 구지표층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의도적으로 주변에서 점질토를 운반해 정지층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단 구지표

는 과거 당시 표면에 드러난 층이기 때문에 유기물 등에 의한 오염에 의한 연약한 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지층의 역할이 상층의 성토부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치밀한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염부위를 걷어내고 의도적으로 조성한 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홍보식 2013, 60~62쪽; 한옥민 2016, 115~116쪽). 분구가 일부 잔존하는 김포 운양동·서산 기지리·부장리 분구묘는 구지표를 정지한 층으로 보고 있지만, 축조과정 속에서 이해한다면 의도적인 정지층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구지표 정지층이나 조성된 정지층 모두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 성토층을 쌓기 위한 대지조성에 해당한다. ② 과정의 주구 굴착은 평면을 계획하는 단계로서 ① 대지조성에 비해 빠를 수도 있으나 잔존하는 분구 토층 양상을 보았을 때, 정지층도 같이 주구의 굴착 선과 연결되어 깔여있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효율적인 면에서도 정지층을 대략 일정 범위에 먼저 조성한 후 주구를 굴착하면서 평면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용이할 것이며, 주구의 굴착된 흙은 정지층 위에 바로 성토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그리고 성토되는 과정에서 분구가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주구의 채토된 흙량으로 대상부 내 분구의 높이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분구의 결속력을 위해서는 외부에서도 다른 재질의 성토재를 운반하여 혼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분구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매장주체시설의 조성과정을 보면 분구가 정지층 위로 비교적 얇게 성토된 양상이 나타나며, 얇은 성토층과 정지층을 굴착하여 매장시설을 조성하는 양상이 다수 확인된다. 즉, 상황에 따라 매장주체시설이 조성되기 전 분구의 완성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는 원 분구의 높이가 삭평되어 윗부분의 양상을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위로 다른 성토층이 덮고 있는 양상을 볼 때, 먼저 정지층과 그 위로 얇은 성토층을 조성한 후 사용 시점에 매장주체시설을 축조하고 그 위로 ④와 같은 전반적인 성토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축조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분구에서 매장시설이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매장시설이 깊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은 또한, 지하식에 해당하며, 지상으로 분구가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생각된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분구묘의 매장관념에 위배된다고 인식하기도 하는데, 최근 한옥민의 연구에서 이러한 축조과정을 제시하면서 동시 성토로 파악한 바 있으며, 기존 분구묘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한옥민 2016, 100~114쪽).

그러나 이러한 축조과정은 분명 정지층 조성과 주구 굴착, 얇은 성토층의 조성까지는 매장시설 안치 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준비단계이면서도 정지층과 성토층의 조성단계와 매장시설의 조성단계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정지층 조성과 평면의 계획 및 정지층 위 성토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하며, 선매장이나 동시 성토가 진행될 계획이었다면, 굳이 정지층 위로 성토층을 조성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토층만 굴착하는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지만, 성토층의 굴착은 불안정한 층으로 충분히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다. 일부 매장시설의 윤곽선이 성토층 내에서 확인되지 않다가 거의 바닥면에 가까워져 나타나는 경우도 목관의 부식으로 인한 벽면을 이뤘던 성토층의 붕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로 묘광이 직각이 아닌 비스듬하게 굴착이 이루어지고 목관의 범위보다 훨씬 넓게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④번의 전반적인 성토과정은 분구묘의 완성이 아닌 이후 다장을 위한 수직 확장 준비과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 매장시설 위 성토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분구묘의 본질적인 매장관념은 먼저 대지(정지층 및 주구굴착)와 성토를 조성하는 것 즉, 미리 준비와 관련 깊다고 생각하는데, 무덤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피장자의 안치와 장례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분구묘의 특성상 주구를 둘러 넓은 묘역 범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정지층과 성토층의 조성 등의 복잡하고 번잡한 과정 자체를 거친다는 것은 정지층 조성-주구굴착-1차 성토-매장시설 조성-마무리성토의 과정이 일련의 끊임없는 과정보다는 크게 준비단계와 매장시설의 조성 및 마무리성토 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1차 성토된 부분의 중심에 매장주체시설이 조성된다는 점은 꼭 완성된 분구를 되파기 하지 않더라도 선분구-후매장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성토된 부분을 굴착하여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분구가 잔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장시설의 깊이가 깊게 나타나는 경우도 위의 양상을 볼 때, 선매장이 아닌 충분히 일정 부분 성토 후 매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선매장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동시 성토의 양상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충청·호남지역 분구묘의 경우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거나 알게 남아있는 양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매장시설이 분구 중에 위치하면서, 무덤의 전통성으로 볼 때, 이러한 축조방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산 축동 2호묘(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익산 울촌리 분구묘, 김제 양청리 분구묘(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부안 역리 옥여 1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광주 하남동 2호분(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무안 고절리 고분(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나주 동곡 횡산고분(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등은 분구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면서도 분구 중심에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먼저 분구가 조성되고 매장주체시설이 조성되지 못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구에 석축묘가 조성되는 예를 제외한 목관·목곽 또는 옹관이 매장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는 선분구의 매장관념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매장시설이 석축묘로 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구획성토 및 동시성토는 당시 축조기술 및 공정과 관련 있으며, 석실, 석곽이라는 매장시설 자체가 조성 후 붕괴되지 않는 안정적인 시설이란 점은 전체적인 틀을 조성하고 그 안에 피장자와 장례가 치러지는 분구묘의 매장개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개념구분과 속성비교

1.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개념구분

사실상 분구묘와 봉토분 이러한 묘제의 구분은 1990년대 보령 관창리에서 처음으로 주구묘가 등장하면서 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천안 청당동(국립중앙박물관 1995), 청주 송절동(백제문화연구원 1995), 공주 하봉리(국립공주박물관 1995) 일원에서는 눈썹형 혹은 ‘ㄷ’형에 가까운 주구가 돌아가고 주구 안쪽에 목관, 목곽 등의 매장시설이 존재하는 분묘 형태가 확인되었다. 두 묘제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분구묘는 매장시설이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주구토광묘는 매장시설이 거의 모두 뚜렷하게 확인되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분구묘는 지상식, 주구토광묘는 지하식이라는 매장관념이 반영된 결과로 인식하면서 주구토광묘는 지하에 매장시설을 설치한 후 봉토를 덮은 봉토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개념 및 용어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청당동 보고서에서는 형태상 주구를 공통적 요소로 판단하여 주구를 갖춘 분묘를 모두 주구묘로 통칭하였으며, 주구묘 안에 매장주체부에 따라 주구목관묘, 주구목곽묘로 구분하고 있다(함순섭 1995, 106~107쪽). 그러나 강인구는 청당동 출토 분묘가 일본의 방형주구묘와는 다른 묘제로 인식하여 주구라는 특징과 매장시설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주구토광묘를 제안한다(강인구 1994, 104~105쪽). 관창리 보고서에서는 청당동 및 송절동의 지하화 된 주구토광묘와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며(이흥종 1997, 139~140쪽), 최완규는 보령 관창리, 서천 당정리(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익산 영등동 주구묘(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의 특징과 충청 내륙의 주구토광묘와 속성비교를 통해 두 묘제 간에 동질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두 묘제의 계통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최완규 1996, 127~129쪽). 임영진 또한, 주구묘와 충청내륙의 주구토광묘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로 함평 만가촌의 이형고분은 주구묘 계통으로 이해하고 있다(임영진 1997). 이성주도 분구묘의 개념과 주구토광묘의 개념은 매장관념 상 분명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두 묘제를 구분짓고 있다. 반면, 기존 청당동 보고서의 관점과 같이 주구묘를 하나의 계통으로 보고 그 안에 주구토광묘, 관창리형·청당동형 주구묘를 구분하고 있으며, 주구토광묘의 범주를 토광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는 것에 주구가 부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성정용 2000, 7~15쪽). 또한, 형태를 기준으로 주구가 굴착되고 중앙에 토광묘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되는 것을 주구토광묘, 그렇지 않고 주구만 확인되는 것을 주구묘로 분류하고 영산강 유역의 분구를 가진 분묘에 대해서는 분구묘 용어보다는 고분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매장시설의 종류에 따라 옹관고분, 목관고분으로 지칭하면서 분구묘라는 즉, 선입견을 품게 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부정하는 견해도 제시된다(최성락 2009, 122~125쪽).

이는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용어구분과 개념을 연구자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묘유적을 발굴하고도 어떠한 용어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과 동일한 유구를 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두 묘제는 매장관념이 다르고 두 묘제 간에 여러 속성(입지, 분포권, 축조방법, 부장유물 등)에서 동질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두 묘제의 축조집단 간에 출자(出自)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성과 보수성이 강한 분묘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속성 차이는 계통이 다름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아직 그 계통에 관한 세부연구는 미진하지만 주구토광묘의 계통으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진(秦)의 고역을 피해 이주한 세력(최완규 2002, 29~30쪽), 서북한지역의 토광묘 축조세력(임영진 2010, 23쪽), 춘추·전국시대 진국의 영역에서 이주세력(강인구 1994, 121~122쪽) 등 대체로 외부에서 이주한 세력 등으로 외부와 연결지어 인식하고 있다. 반면, 분구묘의 계통에 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주구토광묘에 비해 분구묘의 유물이나 매장주체부 등에서 특이점을 찾아 연결할만한 고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주구토광묘는 매장주체부를 먼저 조성하여 안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이전부터 존재해온 매장관념으로, 전통적인 매장관념이기도 하다. 또한, 중요 속성으로 파악되는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토기 관계에 있어 세트 조합이 기본인 부장 시스템과 주구토광묘 권역에서만 확인되는 마형대구, 양단환부봉, 동탁 등과 유개대부호, 원저옹 등의 특징적인 유물은 분구묘 분포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유물로 그들의 계통성과 관련된 유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간의 공통적인 요소에 비해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의 속성비교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는 분명, 두 묘제 간에 계통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묘제 간에 계통적 차이라 함은 형태와 매장관념도 중요하지만 분묘 내부의 문화적 양상의 차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면 용어도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주구+토광묘 용어결합은 단순한 형태의 표현이지만, 용어 자체가 관창리 분구묘와의 구분이 필요하여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는 주구토광묘 문화라는 의미도 내포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준을 지역적·형태적 차이에 두는 구분은 매장주체시설로는 토광묘(목관·목곽묘)를 사용하며, 주구가 부착된 형태를 지칭하는 경우 주구토광묘 그중에서도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주구만 나타나는 유구에 대해서는 주구묘 또는 분구묘로 지칭하게 되며, 동일한 유적 내에서도 매장주체시설이 잔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명칭이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 한편, 영산강유역권에서는 분구묘의 변화과정을 주구토광묘 단계에서 고분단계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의 정리가 있지만, 그 중 주구토광묘와 관련하여 정리된 고분의 개념을 살펴보면 “왕이나 수장급이 출현하여 사회의 계층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 즉 삼국시대의 무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주구토광묘 단계 이후 분구를 갖는 무덤에 대해 고분으로 지칭하고 있다(최성락 2009, 112쪽). 또한, 같은 견해로 영산강유역 고분이 늦어도 3세기 후엽·말에 출현한다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은 묘, 이후는 고분으로 지칭하고 있다(한옥민 2018, 18~19쪽). 여기서의 주구토광묘는 앞서 설명한 묘제 구분을 형태 및 지역적 기준으로 적용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용어만으로 충청내륙지역의 주구토광묘와 영산강유역의 주구토광묘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세부 속성비교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속성비교는 앞서 설명했듯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논의되어왔다. 다만,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비교로 좀 더 구체적인 속성비교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묘제의 세부 속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기존 계통적 차이의 관점에 대한 세부적 근거와 각 묘제의 계통에 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1) 분포권

두 묘제 간에는 분포권역이 구분된다. 분구묘는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면서, 경기 해안권(김포, 인천), 충청 해안권(서산, 당진, 홍성, 보령, 부여, 서천), 호남지역(동부내륙 산악지역 제외)으로 설정될 수 있다.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해안을 따라 넓게 산재하면서, 각 지역별로 중심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주구토광묘의 분포권은 아산만 권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지역인 아산, 평택, 오산, 용인지역과 내륙으로 이어지는 천안-청주 그리고 남쪽으로 공주, 연기, 대전 지역과 북쪽으로 충주지역까지 주구토광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해상루트인 아산만을 시작으로 내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분포하는 양상을 띠며, 고고학적인 물질문화에서도 영남지역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게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교통로를 중심으로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다. 아산, 천안, 청주지역이 중심권역으로서 이 권역에서 벗어날수록 주구토광묘를 구성하는 중심요소가 약해지며, 분구묘 분포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문화접변의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2) 축조방법

분구묘의 축조방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선분구-후매장을 매장관념으로 매장시설이 분구중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시설의 깊이가 깊더라도 대상부 내에서 정지층의 조성과 얇은 분구라도 조성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설된다. 이에 반해, 주구토광묘는 선매장-후봉토를 기본으로 즉, 봉토묘라는 매장관념으로서 매장시설이 지하에 시설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단 현재까지 주구토광묘 중에서 봉토 및 분구로 볼 수 있는 시설이 잔존하는 예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분구묘의 경우도 대체로 훼손되어 사라졌지만, 그래도 간혹 분구가 잔존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유적 내에 매장시설의 잔존양상만 보아도, 분구묘의 대다수가 삭평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거나 얇은 토광의 형태로 거의 유실되고 있지만, 주구토광묘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매장시설이 일정 깊이로 잔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잔존상태의 깊고 얇음은 있지만, 경사가 심한 사면이라도 매장시설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축조방법에 있어 두 묘제 간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잔존하는 봉분의 양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축조방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함몰토를 통해 봉분의 존재는 파악되며, 다수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매장시설의 깊이가 1m 내외로 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구묘의 축조방법과는 다른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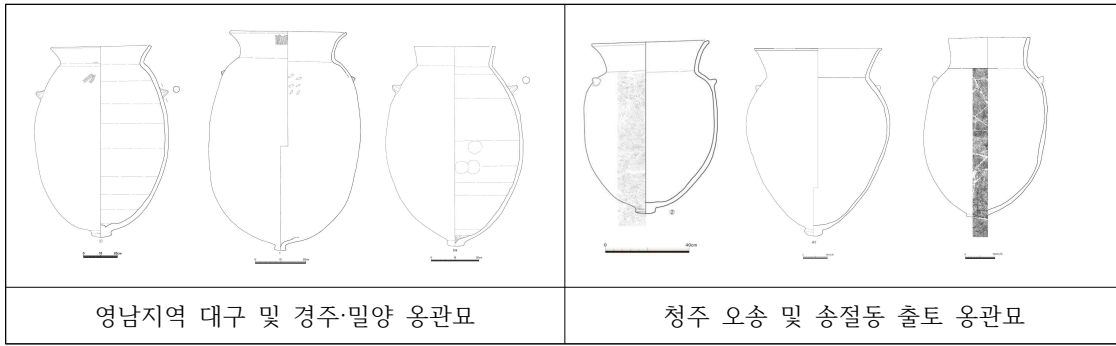
분구묘의 경우 잔존하는 분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구 성토에 많은 노력이 작용했던 결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분구를 미리 탄탄하게 조성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매장관념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봉토분과 같이 기반토를 지하로 굴착하여 매장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장례가 치러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분구가 어느 정도 성토된 상태에서 되파기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계통적 구분에 동의하는 연구자들의 의견과 같이 분구묘의 축조방법이 축조집단의 계통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증거라고 생각된다.

3) 매장시설

두 묘제 모두 중심 매장시설은 토광묘(목관·목곽묘)로 볼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목관, 목곽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목곽내 목관이 시설되면서 이중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확인될 때, 목곽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부장곽이 따로 구분되거나 주혈의 존재 등이 확인될 때, 목곽묘로 상정하고 있다(성정용 2007, 333쪽). 주구토광묘에서는 이중의 목곽·목관시설과 분리된 부장곽 시설 등이 다수 확인되며, 동혈·병혈·이혈의 합장묘 형태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대다수의 주구토광묘는 독립적인 단장 형태가 기본이지만, 다장일 경우 동혈·병혈·이혈 합장묘로 최대 2기의 매장시설을 합장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합장묘는 서북한 지역에서 낙랑 설치 이후 확인되는 묘제 형태로 이혈-병혈-동혈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데(高久 健二, 1995, 146쪽), 주구토광묘 권역에서도 다소 확인되고 있다. 이중의 목곽 내 목관시설 또한, 서북한 지역이 낙랑설치 이후 분묘에서 확인되는 묘제형식으로 이러한 유사한 문화적 양상은 두 지역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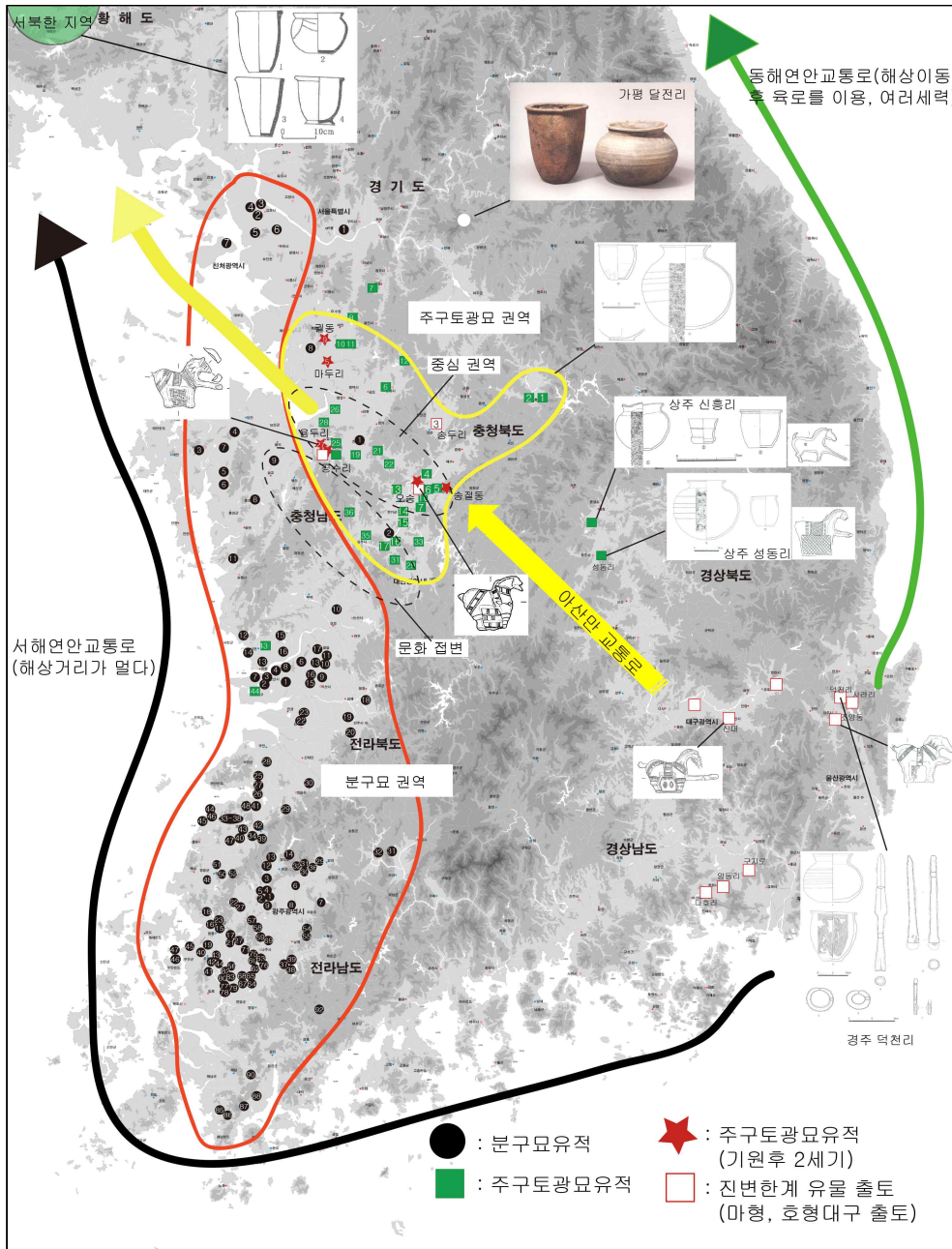
분구묘는 매장주체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잔존하더라도 목관묘 또는 목곽묘의 단순구조로 이해되고 있다. 일부, 서산 예천동, 완주 상운리 등과 같이 합장묘의 예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청주·청원 일원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주구토광묘와 함께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옹관묘의 형태상 특징을 살펴보면, 서해안 분구묘 출토 대형 옹관묘와는 다른 오히려 영남지역과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가 확인된다. 청주 송절동 유적(충북대학교 박물관 외 2018)에서 조사된 단독 옹관묘군에서 대형 옹의 형태는 약간 돌출된 뾰족한 뉴를 가지고 있으며, 동체는 장동형에 저부 바닥에는 유난히 돌출된 축약된 저부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옹관의 형태는 분구묘에서 출토되는 대형 옹과는 구별되며, 경산 신대리 옹관묘 3호나 6호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그 외 영남지역 출토 옹관의 형태인 양이부옹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띤다.



4) 부장유물과 유물조합상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를 비교하는 여러 요소 중 특히,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은 부장유물이며, 그 중 주구토광묘는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부장 세트조합이라는 정형성이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주구토광묘 유적에서 이 조합양상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통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단경호의 수는 많게는 18점까지도 부장이 이루어지지만 발형토기는 1점만 부장되는 양상을 띠며, 근래 자료의 증가로 인해 이전단계의 유개대부호와 원저옹, 원저단경호 조합과 이후 단계의 장경호와 발형토기 조합으로 이어지는 전개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경호의 기종만 변화할 뿐 그들의 전통적인 부장유물의 조합상은 변화되지 않으며, 백제 영역화 이후 5세기 이후 상주 성동리와 신흥리 유적에서도 지속될 만큼 전통성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조합양상은 초기철기시대의 흑도장경호와 원형점토대토기 조합, 서북한지역의 고조선계 혹은 낙랑문화 양상인 단경호(배부른단지) 혹은 백색옹과 화분형토기 조합, 그리고 영남지역의 경주 덕천리 목관묘 단계 및 밀양교동 등 일부 목관묘에서도 원저옹과 단경호 조합을 볼 수 있듯이 부장조합 자체가 재지적인 문화양상보다는 외래적인 양상으로서 그들의 출자를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되며, 분구묘 권역에서는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조합양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주구토광묘 집단과의 다른 계통의 문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구묘의 토기부장의 특징은 정형성이 없지만, 지역에 따라, 원저·평저단경호, 양이부호, 고창을 포함한 이남 지역은 이 중구연토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토기 부장량도 많지 않고 대체로 1~3점 정도 부장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도면 7> 분구묘·주구도광묘 분포범위 및 아산만 교통로를 통해 본 유사양상

주구도광묘의 또 다른 유물의 특징은 마형·호형대구, 양단환부봉, 동병철검, 유개대부호, 원저옹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물들은 분구묘 분포권에서는 단 한 점도 출토되지 않고 있다. 양단환부봉은 주구도광묘 권역에서만 출토되는 유물로 가축을 제어하는 봉면계(이주현 2015), 말이나 가축을 다루던 재갈(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176~179쪽), 목관을 하관하던 용도(최종규 2017, 415~416쪽)로 추정하기도 한다. 동병철검은 최근 아산 공수리 17호·19호토광묘 3점(기호문화재연구원 2020)과 청주 오송 15지점 17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아산공수리 출토품은 별주식으로 경산 신대리와 김해 양동리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여 영남지역과의 관련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송 출토품은 중국 동부 길림 유수노하심 출토품과 유

사한 점을 들어 부여계 문물을 서북한지역을 통해 확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박장호 2020, 52~61 쪽). 마형대구는 마한을 대표하는 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나 출토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며, 분구묘 분포권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다. 이는 대구가 단순히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물품이 아니거나 분구묘 권역에서는 필요성이 없는 물품일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충청 내륙지역에서 마형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일정한 범위 외에서는 출토되지 않음은 대구가 지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형·호형대구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진행되어왔으나(함순섭·김재홍 1995; 김구군 2000; 강인욱 2004; 김성욱 2010; 박장호 2011) 최근 청주·아산지역에서 진·변환과 관련성 있는 유물 자료가 증가하면서 교류의 산물로서 같이 논의되고 있다. 마형·호형대구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위세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진·변환과의 관련성은 분명하지만, 의미와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편이며, 주구토광묘 분포권과 겹쳐서 나타나는 마형대구가 그들의 계통성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진 물품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김중엽 2011, 132~134쪽).

마형대구는 영남지역의 영천 어은동 출토품을 시작으로 경산, 경주, 창원, 김해 등지에서 출토되다가, 목관묘 단계에서 더는 부장되지 않으며, 충청지역은 아산 용두리(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평택 마두리(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청주 오송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8)에서 경주 덕천리 124호(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조양동 60호(국립경주박물관 2003), 사라리 130호(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단계와 연결할 수 있는 진·변환계 마형대구가 출토되고 이후 다양한 형식의 마형대구가 아산만권과 충청내륙을 중심으로 다량 출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직 영천 어은동, 경산 신대리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출토 고식의 마형대구가 충청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청주 오송 유적에서 처음으로 호형대구가 확인된 사실은, 최고식 마형대구의 출토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지역 출토 마형·호형대구는 위세품으로서 성격이 나타나는데, 대구 비산동, 영천 어은동, 경산 신대리, 경주 조양동, 경주 사라리 출토품이 그러하다. 모두 다양한 청동유물들과 공반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 덕천리 목관묘의 경우는 단지 구슬 45점만 공반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호형대구도 마찬가지로, 공반유물 양상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적에 비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묘광의 규모도 1.68㎡로 평균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과연 상위신분의 무덤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는 후행하는 형식인 김해 구지로 석곽묘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데, 묘광의 면적도 소형이면서, 마형대구만 부장되고 있다. 그런데, 경주 덕천리, 김해 구지로와 같은 단순한 유물조합이나 유물의 빈약한 부장 양상은 충청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아산 용두리 마형대구 출토 토광묘는 2기 모두 마형대구 1점만을 부장하고 있으며, 이 외 공반하는 유물 없이 토광묘의 묘광 면적도 2㎡ 넘지 못하는 소형에 해당한다. 충청지역에서 가장 고식으로 알려진 평택 마두리 토광묘에서는 다량의 구슬과 공반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청당동 유적에서도 마형대구 11점이 부장된 5호묘의 경우 구슬이 1500여점과 원저단경호, 발형토기 조합이 공반하고, 16호묘에서는 원저단경호 8점이 부장되면서 상위계층의 묘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양상을 띠지만 다른 7호·9호묘는 마형대구 외에 별다른 공반유물이 보이지 않으며, 진·변환계 마형대구가 출토된 아산 용두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유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충청지역에서 마형·호형대구는 상위계층으로 상징할 수 있는 분묘에 부장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양상을 띠거나 빈약한 양상의 무덤 등에도 부장되며, 묘광의 규모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마형·호형대구가 순수하게 위

제품으로서 상위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청동 제작이라는 특징으로 본다면, 동물형 대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물품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고 제한된 물품으로 간주하기에는 우월성이 확인되지 않고 보편적인 부장양상도 나타난다. 대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마형·호형대구는 부장양상 및 규모로 볼 때, 상위계층의 전유물은 아니다.
- 대구는 허리에 표식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물품이라 할 수 있다.
- 출토범위는 주구토광묘 분포권 중에서도 중심권역, 아산만을 따라 아산-천안-청주-상주-대구-경산-경주로 이어지는 교통로 및 그 주변 일원에서 출토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마형·호형대구의 최고식으로 알려진 지점은 대구 비산동(호형대구), 영천 어은동(마형대구)이며, 경주 조양동, 덕천리, 사라리 단계의 고식 마형·호형대구는 충청지역의 평택 마두리, 아산 용두리 진터, 청주 오송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다.
- 진·변한지역에서는 목곽묘 단계부터는 부장되지 않지만, 주구토광묘 권역에서는 4세기대까지도 많은 양의 마형대구가 부장되면서 진·변한지역과는 다른 형식으로 자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당동 9호묘의 마형대구는 2가지 형식으로 사실적인 형태에 무문양, 도식화된 형태에 격판에 격자문양이다. 사실적인 형태는 무문양의 차이가 있지만, 형태상 경주 조양동, 덕천리 출토품과 비슷하다. 청주 오송 4지점 106-2호에는 마형대구와 호형대구가 출토되었는데, 호형대구는 매우 사실적인 형태로 고식에 가깝고 마형대구는 청당동 유적의 도식화된 형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도식화된 마형대구 일지라도 고식의 마형·호형대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동물형 대구의 흐름이 다른 형식일지라도 단절 없이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주구토광묘권역 출토</p>	
	<p>1. 청주 오송 15지점 17호토 2. 아산 공수리 17호토 3. 아산 용두리 23토 4. 청주 오송 15지점 20호토 5. 청주 오송 4지점 47호토 6. 청주 송절동 2지구 33호토 7. 아산 공수리 2호토 8. 아산 공수리 10호토 9. 청주 송절동 5지구 9호토 10. 청주 송절동 2지구 2호, 7호 용관</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영남동남부지역 출토</p>	
	<p>1. 경주 조양동 60호묘 2. 김해 양동리 55호묘 3. 경산 신대리 63호묘 4. 경주 사라히 130호묘 5. 경산 신대리 94호묘 6. 영천 어은동 7. 경주 덕천리 124호묘 8. 경주 조양동 60호묘 9. 경주 조양동 60호묘 10. 경주 황성동 575번지 13호묘 11. 경산 신대리 2호 용관묘</p>

<도면 8> 주구토광묘권역 및 영남동남부지역 관련 출토유물

이러한 점을 토대로 마형·호형대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추론해보면 소유 집단의 계통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식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영남 동남부지역과 아산만을 잇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출토된다는 점은 소유 집단이 중국이나 낙랑과의 교역 및 교류를 위한 가장 빠른 루트로 아산만을 이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루트가 그들이 처음 정착하던 당시 들어왔던 이동로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주 왕래를 통해 확보된 익숙한 교역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지역에서 중국으로 또는 낙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 서쪽으로 육로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 남해안과 서해안 연안을 따라 해로를 통해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 부분은 육로를 이용하여 아산만에서 해로를 따라 이동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다른 세력집단을 최소로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도면 2>참조. 처음 대구 비산동이나 영천 어은동과 같은 최고식의 마형·호형대구 집단은 다양한 청동유물의 부장양상으로 볼 때, 기존 토착세력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그들의 계통에 대해서는 중국 동북 요서지역으로 보기도 하지만(강인욱 2004,

120~122쪽) 직접적인 연결은 아직 어렵다. 이들 집단은 처음에는 아산만 교통로를 따라 대구, 영천, 경산 일원에 정착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경주지역과 충청 아산만 권역으로도 정착을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영남지역에서는 목곽묘 단계가 시작된 이후로 마형·호형대구가 부장되지 않고 충청지역에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점은 소유 집단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주 덕천리 목관묘 군의 예로 보면, 마형·호형대구 부장과 단경호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및 원저옹 조합, 주구의 조성 등 문화적 양상이 주구토광묘 문화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목곽묘 단계에서는 이전의 전통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계승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 또한, 목곽묘 단계에서는 목관묘 단계에 비해 루트를 통한 교류 양상도 적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교역로의 확보 및 주구토광묘권의 마한세력과의 관계 악화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5) 묘제별 전개과정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전개 과정에 대한 파악은 두 묘제가 같은 계통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 기준이 된다. 기존 주구토광묘는 천안과 청주·청원 일대를 중심으로 2세기 후엽부터 등장하여 3세기 대 성행기를 거쳐 이후 4세기가 중심을 이루는 청주 봉명동 토광묘군과 4~5세기 천안 용원리 석곽묘 및 토광묘군(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청주 신봉동 토광묘군(충북대학교박물관 1995)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연기 송담리 유적과 대전 용산동, 경기 남부지역인 용인 마북리, 오산 수청동 유적(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2) 등에서는 4~5세기에 해당하는 주구토광묘가 조사되면서 늦은 시기까지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구토광묘는 천안·청주지역에서는 시기에 따라 주구가 사라지고 일부 석곽묘로 변화하면서도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부장전통은 연질에서 경질로 또는 기종이 장경호, 평저호 등으로 변화하지만, 조합양상은 계속 이어진다. 반면, 연기 및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주구토광묘가 그대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근래에 아산 용두리 진터, 평택 마두리, 오산 켄동(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3)과 대규모의 주구토광묘가 확인된 청주 오송 및 송절동 유적에서 2세기로 편년되는 마형·호형대구, 동병철검, 이단관식 및 관부돌출형 철모, 원저 옹, 유개대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편년 기준으로 기원후 2세기 초부터 5세기 대까지의 주구토광묘 전개과정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원저옹과 유개대부호, 진변한계 대구 등이 부장되는 토광묘 단계에서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 중심의 주구토광묘와 토광묘 공존단계 그리고 평저단경호, 장경호, 흑색마연토기 등 백제의 물질문화가 등장하는 토광묘·석곽묘로 변화(청주·천안중심) 및 주구토광묘의 계속적 전통유지 단계로 변화를 상징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부장유물의 조합상이 유개대부호+원저옹-원저단경호+발형토기-광구호+천발형토기 및 완 등으로 본질적인 조합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구묘 또한, 자체적인 전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분구묘의 출현기 유적으로는 영광 군동 A지구 18호묘(목포대학교박물관 2001)·곡성 대평리19호·22호묘·서산 예천동 18호묘·김포 운양동 27호묘와 같이 매장주체부가 비교적 깊게 잔존하는 양상이 있으며, 보령 관창리·서천 당정리·익산 영등동·완주 상운리 유적의 경우처럼 매장주체부는 삭평되고 주구만 잔존하면서 주구 내에서 원형점토대토기편, 두형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으로 구분된다. 출현 시기는 기원전 3~2세기경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

인 시각도 있다.³⁾ 그러나 영광 군동이나 곡성 대평리의 경우로 볼 때, 적어도 기원전 후한 시기에는 분명 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분구묘의 형태는 단장으로서 독립적인 분포를 띠고 있다. 이후 분구묘는 점차 연접하면서 일부 주구를 같이 공유하는 동시에 매장주체부 주변으로 대형 옹관묘 등의 매장시설이 나타나며, 대다수의 연구자는 기원후 3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분구묘의 연접과 수평·수직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분구묘가 단장에서 다장으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임영진 2002b; 최완규 2002; 이택구 2008; 최성락 2009; 김승옥 2011). 대체로 한 분구 내에 3기 이상에서 10기 내외의 매장시설이 확장을 통해 축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충청과 경기지역은 호남지역에 비해 늦은 4세기 무렵부터 서산 기지리, 서산 여미리 방죽골(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서산 부장리 분구묘에서 분구의 수평·수직 확장을 통한 3~4기의 매장시설이 안치되는 다장이 나타난다. 경기지역에서는 인천 김단 원당동 분구묘(중앙문화재연구원 2019)에서 처음 다장이 확인되는데, 한 분구 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5기의 토광묘가 시설되고 이후 그 위로 중복도 이루어진다. 5세기에 들어서면 영산강 유역권과 고창지역에서는 대형 분구묘가 등장하며, 그 외 지역도 이전 시기에 비해서 높은 분구를 가진 분구묘의 조성이 이루어진다. 높아진 분구의 조성은 다장을 위한 수직 확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분구묘는 처음에는 단독묘로 시작했더라도 점차 혈연 중심의 다장묘로 발전하면서 최상위 위세품이 부장되는 권력자도 단독으로 안치되지 않고 같은 분구 범위 내에 대등하게 다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장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장의 양상이 경기 해안지역부터 영산강 유역까지 기존 분구묘 분포권과 동일하게 확인된다는 것 또한 같은 매장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문화의 접변과 영향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는 앞서 살펴본 여러 속성에 의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지만 모든 양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공통적인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도 상황에 따라 혹은 개인 의지에 따라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히 다양성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주구토광묘 권역에서 보이는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조합양상이 대표적인 특징이지만 모든 분묘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주구토광묘의 ‘ㄷ’형과 눈썹형 주구가 주를 이루지만 방형의 주구 형태도 다수 확인된다. 분구묘 권역은 대체로 선분구-후매장의 축조를 보이지만 선매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매장시설의 깊이가 깊게 조성되는 양상도 분명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에 따른 개인 의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주 장원리(충남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3) 보령 관창리 주구묘의 경우 주구 내에서 다수의 원형점토대토기편, 무문토기편, 두형토기, 석기 편 등이 출토되고 있으면서 일부 주구에서는 타날된 연질 혹은 와질토기편이 같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상부에서 확인된 KM423호 토광묘는 위석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부에서 철모 4점이 확인되었고, 철모의 편년이 영남지역과 비교했을 때, 기원후 2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편년된다. 이러한 점들은 출토유물의 맥락에 있어 불안전성을 이유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편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M423호가 충청일원 분묘에서도 상당히 이른시기에 해당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는 관창리 분구묘는 KM423호가 조성되던 당시 이미 대규모의 군집을 이루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관창리 분구묘의 시기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 궁동 유적(충남대학교박물관 2006)에서는 대부분 눈썹형이나 일자형의 주구를 가지지만 방형의 주구를 가진 주구토광묘가 1기 출토되고 있다. 방형의 주구토광묘는 부장유물이나 규모로 볼 때, 타 주구토광묘에 비해 우세하다. 이는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한 개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구묘 권역에서는 미리 무덤을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매장상황이 오면 상황에 따라 선매장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상들은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거나 돌발적 특수한 상황으로 그 문화권의 보편적인 특징을 대변하지는 못한다.

두 번째는 문화의 집변 양상이다. 연기 대평리 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7)의 경우 묘제 양상은 분구묘로 볼 수 있지만, 부장유물에서는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조합 및 마형대구 출토 등 주구토광묘의 요소가 나타난다. 공주 하봉리는 기존 주구토광묘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구의 형태도 매장주체부의 상당 부분을 감싸고 있고 토광의 깊이도 얕으며, 주구 내 토광묘의 매장시설이 조성되거나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조합이 확인되지 않는 점. 2기의 토광묘와 인접하여 옹관묘가 나란하게 위치하는 점 등 분구묘적인 요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북쪽에 위치한 장원리에서는 기본적인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서천 및 홍성 일원에서도 확인된다. 서천 당정리나 옥남리 일원에서는 분구묘가 분포하는데, 서천 오석리 유적(공주대학교박물관 1996)에서는 주구토광묘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홍성 석택리 유적(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의 분구묘의 경우 부장양상 및 유물의 부장에서 주구토광묘 요소는 나타나지 않으나 매장주체부가 주구의 깊이보다도 깊게 조성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A-1지구에서는 주로 주구토광묘 권역에서 확인되는 목곽 내 목관시설이 7기가 확인되고 있다. 세종 대평리와 공주 하봉리는 천안,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구토광묘 중심권역에서 남쪽으로 벗어나면서, 이들의 중심 교통로에서도 이격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강에 접해 위치하면서 분구묘 문화권과의 교류도 잦았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대전지역 주구토광묘는 분구묘적 요소가 보이지 않지만, 유물부장 면에서 중심권역과 차이를 보이는 점 역시 주구토광묘의 주체 집단이 아닌 영향을 받아들인 집단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들은 대체로 분구묘와 경계지점 및 주구토광묘의 중심권역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청주 오송유적 3·4지점에서 확인되는 구획토광묘 및 주구연접토광묘의 경우 원래 그들의 주구토광묘와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가장 큰 차이는 주구의 형태도 있겠지만 개인 단독으로 형성되던 분묘가 연접하면서 주변으로 토광묘가 방향성을 달리하며 다수 인접하여 배치되고 있다는 점으로 분구묘에서 확인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부장조합 양상이나 다른 요소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계통의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보고서에도 서술하고 있지만 이들 집단이 필요에 의해 분구묘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122~123쪽). 현재로서 이러한 현상들은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한 사회적 변화, 문화 집변에 따른 발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김승욱 2019, 6~7쪽), 집단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던 곳 즉, 문화의 중심에서 벗어난 권역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집변에 따라 달리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속 성	분구묘	주구토광묘
분포권	서해안 일대 경기 김포, 인천 충청 서산, 당진, 홍성, 보령, 부여, 서천 호남 동부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아산만권경기 평택, 안성, 용인, 오산 아산만권충청 아산, 천안 충청내륙 청주, 충주, 연기, 공주, 대전
입지	저평한 구릉, 평지	산 경사면, 구릉 사면(경사도가 있음)
축조방법	선분구 후매장, 약간 성토 후매장 (지상식 및 반지하식)	선매장후봉토(지하식)
매장시설	토광묘(목관·곽), 대형옹관묘 매장시설이 상당부분 확인되지 않음	토광묘(목관·곽) 거의 대부분 매장시설이 잔존하는 양상
매장형태	단장(토광묘, 대형 옹관묘) 배장(옹관, 토광묘 주변에 안치) 다장(수평·수직확장)	단장(토광묘) 합장(이혈·병혈·동혈)
주구 및 평면형태	방형, 제형, 원형, 마제형	눈썹형, 일자형, ‘ㄷ’형, 일부 방형
주요부장유물	양이부호, 평저단경호, 이중구연호 철징, 환두도 등(지역에 따라 차이)	원저단경호+발형토기 조합(정형성이 확인) 마형·호형대구, 동탁, 양단환부분 등
공반 묘제	토광묘, 단독 옹관묘 소수 분포	토광묘 다수 분포 (지역에 따라 비중차이)
전개양상	단장-배장양상-연접-수평,수직확장-고층분구	토광묘중심(유개대부호+원저옹 조합)-주구토광묘·토광묘 공존(원저단경호+발형토기 조합)-주구토광묘·토광묘 지속(광구호 및 장경호+발 조합)

<표 1>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속성 비교표

V.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계통성에 관한 고찰

분구묘와 주구토광묘가 성행하는 시기는 대략 2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정도로 볼 수 있으며, 백제의 물질문화가 분묘에 반영되기 전 마한문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3세기 중엽 경에는 『삼국지』 동이전, 『후한서』에 기록된 50여국의 마한 정치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고고학적 자료를 볼 때, 확인되는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대규모의 분묘 분포양상 등은 이미 마한의 각 정치체가 역동적이며 안정화된 사회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한을 구성하는 각 각의 정치체가 어느 정도 규모였고, 어디에 위치하며, 어떠한 사회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이다. 특히, 마한의 영역도 명확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현재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이들의 정치체를 모두 구분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적어도 앞서 살펴 본 묘제의 고고학적 속성비교는 분구묘 문화권과 주구토광묘 문화권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두 묘제는 서로 다른 계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묘제는 각자 다른 출자로 시작점을 달리 성장했던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묘제 양상뿐 아니라 부장양상과 출토유물 등의 전반적인 분묘문화의 차이를 뜻하고 있다.

분구묘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⁴⁾가 있지만, 아직 연결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일단 한반도에 출현하는 시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또는 기원후 2세기경으로 논란이 있지만, 김포 운양동 27호묘, 서산 예천동 18호묘, 보령 관창리, 서천 당정리, 익산 영등동, 완주 상운리 ‘가’지구, 영광 군동, 곡성 대평리 유적 등은 출현기에 해당하는 분구묘로 곡성 대평리 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해안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분구묘 분포권 자체가 서해안의 저평한 구릉 지대에 해당하지만 출현기 분구묘 또한, 해안에 인접하여 시작된다는 점은 분구묘 집단이 해양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추정해볼 수 있다. 최근 구슬을 통한 환황해권의 역동적인 해상교역이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연구(허진아 2019)를 비롯하여, 기존 패총의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서현주 2000; 최성락·김진수 2002)는 분구묘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구묘의 특성상 삭평으로 인한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예가 많고,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더라도 유물의 부장이 매우 빈약하고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형성도 보이지 않는다. 일부 김포 운양동 27호묘 출토 백색옹, 철장검과 서산 예천동 18호묘 출토 청동제 검초금구와 철장검의 청동제 검코(심부) 등의 유물은 서북한지역과의 관련은 있지만, 이들의 계통을 특정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다. 결국, 이들 집단의 매장관념이 반영되어 조성한 분구묘 자체가 집단의 계통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분구묘는 서해안 어느 지역에서 등장하여 이후 서해안의 인접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시작점은 충청 서해안의 보령 관창리 일원 혹은 서산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서산에서는 아직 이른 시기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군집의 분구묘가 늦은 시기까지 발전과정을 보인다는 점은 분구묘의 중심권역으로서 일찍부터 분구묘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일원은 태안반도로 돌출된 지형을 띠고 있어, 서북한지역과 중국과

4) 기원설은 중국 강남의 토돈묘, 중국 위구묘, 지식묘 발전설, 송국리문화관련설 등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아직 시기적으로나 문화양상으로 직접 분구묘와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로 비슷한 문화양상을 토대로 추정할 뿐이다. 출현 시기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다.

의 교류에서도 좋은 지리적 여건으로 선진문물의 수용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을 것으로 보인다. 보령 관창리는 주구 내에서 출토되는 소수의 타날된 연질토기편을 근거로 2세기 이후로 편년 되는 경향이 높지만, 일단 다수의 이른 시기 유물(원형점토대토기 및 두형토기편)이 출토된다는 점과 대규모 군집을 이룬다는 점은 한시에 동시 조성이 아닌 오랜 기간 순차적 조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타날문 토기의 등장도 일렀을 것으로 추측된다.⁵⁾ 이후 분구묘의 확산은 경기와 호남지역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지역은 넓은 대상부를 가지는 방형 또는 장방형의 평면형태가 주를 이루고 호남지역은 제형의 평면과 대형 옹관묘가 결합하는 양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 문화와의 접변을 통해 지역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2세기 후반에는 중심 토착 묘제로 자리 잡게 된다.

주구토광묘는 분구묘 분포와는 다르게 일정한 루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뭉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이 바로 아산만을 따라 내륙으로 연결되는 아산-천안-청주-충주 일원에 해당한다. 주구토광묘는 주구가 없는 단순 토광묘와 거의 대부분의 유적에서 공존하고 있어, 주구토광묘와 단순 토광묘의 관계 파악도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분포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아산, 천안 일원이 주구토광묘의 비율이 높고, 청주 및 충주 일원의 내륙지역이 상대적으로 토광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중엽 2013, 168~169쪽). 그리고 주구토광묘와 공존하는 단순 토광묘는 주구를 제외하고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징적인 양상도 보이지도 않는다. 최근 경주 조양동, 덕천리 단계의 이른 마형대구가 출토되는 분묘가 단순 토광묘이고, 유개대부호와 원저옹 및 이단관식과 관부돌출형 철모가 출토되는 분묘의 다수가 토광묘인 점은 주구토광묘에 비해 단순 토광묘가 상대적으로 먼저 등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 덕천리에서 나타나는 주구가 굴착된 목관묘 양상이나 대구 팔달동 목관묘 위로 주구가 굴착된 양상은 2세기 전·중엽에도 주구토광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단순 토광묘와 주구토광묘의 차이를 단순히 시간성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전 연구에서 공존하고 있는 동일 유적 내 두 묘제를 비교했을 때, 주구토광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고, 공통부장유물이라 할 수 있는 원저단경호의 부장량이 많게 확인한 바 있다(김중엽 2013, 182~186쪽). 이러한 양상은 주구라는 요소가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별적인 선택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마형대구가 부장되는 분묘도 상대적으로 단순토광묘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구토광묘와 단순토광묘 차이가 집단성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주구토광묘는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라는 부장양상에서 정형성이 매우 뚜렷하다. 유개대부호도 원저옹과 세트조합을 이루고, 지역적으로 미호천유역에는 대형옹과 유공호가 부장되고 곡교천유역에는 원통형토기가 추가되는 등의 차이가 보이며, 마형대구·호형대구와 양단환부봉 등의 유물은 주구토광묘 권역에서는 다수가 출토되지만, 그 외 마한권역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평면형태상의 주구토광묘 범위가 가장 넓고,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 등의 조합양상의 분포는 그보다 좁은 범위에서 나타나며, 마형대구, 양단환부봉의 출토범위는 조합양상보다도 한정된 범위가 확인된다. 세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지점은 바로 아산만을 따라 위치하는 아산-천안-청주와 내륙의 충주 일원으로서 중국, 서북한지역과 영남지역 간

5) 대구 팔달동에서 출토되는 타날문 와질토기를 비롯하여 영남지역 출토 와질토기는 기원전후한 시기에 등장하면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등과 공반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반면, 이들의 주 교역로 시작지점에 해당하는 호서 서해안지역에서는 기원후 2세기 대까지 거의 고고학적 물질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의 교통로 상에 해당한다. 앞장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주구토광묘 집단은 이러한 루트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집단이 교류를 통해 이곳에 이주하거나 정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분구묘의 분포권역에 비해 수 백기가 넘는 분묘가 밀집하여 분포한다는 사실은 이 일대가 수많은 인구가 활동하던 역동적인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경호와 발형토기의 조합양상은 이들의 계통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조합양상은 그 이전 시대의 흑도장경호와 원형점토대토기 조합과 서북한 지역의 단경호 및 백색옹과 화분형토기 조합과도 관련이 깊다. 주구토광묘 계통은 이러한 부장전통을 가진 어느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이전 단계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보다는 외부에서 일찍이 유입되어 2세기 중후반에는 이미 정착을 이뤄 성장한 토착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토착세력과 우호 관계 속에 일부는 서북한 지역, 영남지역의 목관묘 세력과 마형·호형대구 소유 집단의 이주 및 정착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구토광묘 중심권역에서 출토되는 다수의 영남지역과 관련 유물 및 묘제양상(옹관묘), 서북한 지역의 유물출토 및 묘제양상(함장묘, 목관계목곽, 부장조합)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 중 서북한 지역 집단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韓조에 “환령지말에 한과 예가 강성하여 군현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많은 유민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는 기사로 볼 때, 2세기 중엽 이후에 유민들이 대거 남한지역으로 유입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부장조합양상과 함장묘, 목곽 내 목관 시설 등 분묘문화로 볼 때, 주구토광묘 권역은 남한에서 가장 서북한지역의 문화양상과 닮아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민들이 유입된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영향력도 상당부분 작용하였겠지만 강성한 한과 예 세력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 강성한 한 세력이 정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정립된 편년체계⁶⁾를 토대로 추론해본다면, 2세기 전엽 이전에는 주구토광묘 권역은 거의 공백지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원전 1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영남지역의 와질토기 및 철기를 소유하는 목관묘 집단이 아산만 루트를 통해 중국 또는 서북한 지역과 교류를 했다면 방해받을 만한 세력집단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세기 전엽 정도에 충청지역에서는 영남지역과 관련 있는 진변한계 마형대구와 유개대부호, 원저옹의 부장 토광묘의 등장을 시작으로 2세기 중·후엽 이후부터는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의 정형성이 있는 부장문화와 함께 주구토광묘의 증가 양상은 외부 집단으로부터 형성된 문화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필자는 적어도 2세기 이전에 이곳에 정착하여 토착화된 중심세력이 있었을 것이며, 이들의 기층문화가 단경호와 발의 조합양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영남지역과 서북한지역 집단의 이주와 정착은 주구토광묘 권역 내에 정치체를 구성하던 일부 세력으로서 기존의 주구토광묘 토착 집단과 전부터 맺어온 우호적인 관계 속에 어우러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박형열의 연구에서 유개대부호의 중심을 청주일원으로 비정하면서 기원후 1세기 대까지 연대를 상향하고 영남지역으로 이주를 상정하는 견해(박형열 2019, 84~86쪽)는 이 일원에 기원후 2세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2014년 김장석의 연구는 유개대부호, 단경호, 원저옹=U형토기 집단과 단경호, 경

6) 현재 아산만 권역과 충청내륙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등장은 2세기 전엽 무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철모에서 관부돌출형, 가장 이른 형식으로 파악하는 이단관식 철모가 영남지역에서는 2세기 전·중엽 경으로 편년되면서 주구토광묘의 편년자체도 2세기 이후로 보고 있다. 이미 대구 팔달동을 비롯한 영남지역에서는 기원전 후부터 와질토기가 등장하면서 철기와 청동기를 공반하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의 주구토광묘 권역은 고고학적 물질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공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질무문발형토기 집단과의 계통 차이를 구분하면서 동시기에 공존했을 가능성과 전반적인 출현 시기를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김장석 2014, 104~109쪽)하여 주구토광묘 문화의 다원성과 공백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주구토광묘의 중심 권역으로 볼 수 있는 아산, 천안, 청주 일원은 교통로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다양한 집단이 활발하게 왕래하면서 그 과정 속에 정착도 이루어진 사회였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분구묘 권역에 비해 훨씬 대규모의 분묘 군이 조성되는 것만 보아도 주구토광묘의 계통은 분구묘 계통과는 달리 단일 토착중심의 세력보다는 마형·호형대구 소유 계통, 서북한 지역에서 이주한 계통, 이주 정착하여 토착화된 계통 등이 어우러져 다문화적인 주구토광묘 사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 진한조에 기록된 “秦의 고역을 피해 한으로 이주하여 마한이 동쪽 땅을 내어주었다.” 는 진계 유이민 기사는 마한의 허락으로 인해 동쪽으로 이동해 진한에 정착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고, 중국에서 진한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상기할 때, 아산만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동쪽 땅을 내어줄만한 마한세력은 아직은 선부른 추측일 수 있지만, 아산만 초입에 위치하는 주구토광묘계 토착세력이거나 보령 관창리나 서산일원의 분구묘 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물의 출토 상으로 보면, 후자 쪽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개념정리 및 상호비교를 통해 두 묘제의 계통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두 묘제가 성행하던 시기는 가장 역동적인 마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계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문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서북한 지역의 낙랑, 중국의 요동·요서, 산둥반도 등과의 교류양상도 보이면서 진·변한과의 긴밀한 교류 관계도 확인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교역로가 바로 아산만 일원으로 비정된다. 아산만에 접한 서산·보령 일원의 분구묘 세력도 이례적으로 100여 기에 가까운 밀집분포를 보이는 점도 기항지로서의 해상교류가 성장기반이 되었을 것이며, 아산·천안·청주 일원도 교통로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지역이 인접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분묘 양상을 보이는 점은 계통적인 차이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연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편년공백이다. 아직 편년에 있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 전까지의 공백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질문화를 통해 편년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전되었지만, 영남지역의 목관묘 또는 와질토기 단계와 비교했을 때, 호서지역은 기원후 2세기가 돼서야 몇몇 유적에서 분묘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등장하는 “한과 예가 강성하다..”, “마한이 그들의 동쪽 땅을 분할하여 우리에게 주었다. ”, “...진왕은 항상 마한인으로 왕을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으며...” 등의 마한세력에 관한 기사와는 전혀 매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다수 연구자가 고민하는 부분이겠지만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近藤議郎, 1977, 「古墳以前の墳丘墓-楯築遺跡をめぐって」, 『岡山大學法文學部學術紀要』.
- 都出比呂志, 1986, 「墳墓」, 『岩波講座日本考古學 4 集落と祭祀』, 岩波書店.
- 高久 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研究』, 學研文化社, pp.146.
- 姜仁求, 1984, 『三國時代墳丘墓研究』, 民族文化研究叢書 10, pp.2~5.
- 강인구, 1994, 「주구토광묘에 관한 몇가지 문제」, 『정신문화연구』 17-3(통권 56호), pp.104~122.
- 강인옥, 2004, 「韓半島 出土 動物形 帶鉤의 系統에 대한 시론적 검토」, 『湖南考古學報 19』, 湖南考古學會, pp.120~122.
- 김구균, 2000, 「호형대구의 형식분류와 편년」,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20주년기념논총』.
- 김남중, 2006, 「분구묘전통과 영산강유역형 주구」, 『나주 북암리 3호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pp. 358~360.
- 김성욱, 2010, 『한반도 마형대구의 편년과 지역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욱, 2011, 「중서부지역 마한계 묘제의 성격과 발전과정」, 『분구묘의 신지평』, 전북대학교BK사업단, pp.132~133.
- 김승욱, 2019,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호남고고학보』 63, 호남고고학회, pp. 6~7.
- 김장석, 2014, 「중부지역 격자형타날문토기와 U자형토기의 등장」, 『한국고고학보』 90, 한국고고학회.
- 김중엽, 2011, 『3~4세기 중서부지역 마한묘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32~134.
- 김중엽, 2013, 「3~4세기 호서지역 (주구)토광묘 연구」, 『마한백제문화』 제22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pp. 168~186.
- 리순진, 2003, 『락랑구역일대의 고분발굴보고』, 백산자료원, pp. 45.
- 박장호, 2011, 『원삼국기 동물형대구의 전개와 의미』, 영남대학교문화인류학과석사학위논문.
- 박장호, 2020, 「호서지역 출토 청동기로 본 마한의 대외교류」, 『민족문화논총』 제74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52~61.
- 박형렬, 2019, 「원삼국시대 토기로 본 중서부와 영남지역의 대외교류」, 『호서 마한의 대외 관계망 형성』, 국립청주박물관, pp.84~86.
- 서현주, 2000,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패총의 현황과 형성배경」, 『호남고고학보 11』, 호남고고학회.
- 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領土化科程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pp. 7~15.
- 成正鏞, 2007, 「IV. 考察」, 『忠州 金陵洞遺蹟』, 忠北大學校博物館, p.333.
- 성정용, 2011, 「목관묘와 목곽묘」, 『동아시아의 고분문화』, 서경문화사, pp. 186~187.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청주 오송유적-종합고찰-』, pp.122~179.
- 이남석, 2011, 「경기·충청지역 분구묘의 검토」, 『분구묘의 신지평』, 전북대학교BK사업단 pp.116~122.
- 이성주, 2000, 「墳丘墓의 認識」, 『한국상고사학보』 32, 한국상고사학회.
- 이주현, 2015, 「兩端環棒狀鐵器斷想」, 『우정의 고고학』, 故孫明助先生追慕論文集.
- 이택구,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마한분구묘」, 『한국고고학보』 66, 한국고고학회, pp. 50~51.
- 이흥중, 1997, 「V 관창리주구묘에 대한 고찰」, 『관창리 주구묘』,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 이 훈, 2006, 「서산 부장리 분구묘」, 『분구묘·분구식 고분의 신자료와 백제』, 한국고고학회.
- 임영진, 1997, 「영산강 유역의 이형분구 소고」, 『호남고고학보』 5, 호남고고학회, pp.23~24.
- 임영진, 2002a, 「전남지역의 분구묘」, 『동아시아의 주구묘』, 호남고고학회 pp.56~57.
- 임영진, 2002b, 「榮山江流域圈의 墳丘墓와 그 展開」, 『湖南考古學報』 16, 湖南考古學會.
- 임영진, 2010,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백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 백제학회, p 23.

- 임영진, 2015, 「마한 분구묘의 조사·연구 성과와 과제」, 『마한 분구묘 비교검토』 마한연구원 총서 1, 학연문화사.
- 최성락·김건수, 2002, 「철기시대 패총의 형성배경」, 『호남고고학보』 15, 호남고고학회.
- 최성락, 2009, 「영산강유역 고분연구의 검토-고분의 개념, 축조방법, 변천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33, 호남고고학회, pp. 112~125.
- 최완규, 1996, 「주구묘의 특징과 제문제」, 『고문화』 제49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완규, 2002, 「전북지방의 주구묘」, 『동아시아의 주구묘』, 호남고고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 pp. 29~30.
- 최완규, 2006, 「분구묘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분구묘·분구식 고분의 신자료와 백제』,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pp. 9~10.
- 최종규, 2017, 「Ⅵ. 고찰」, 『평택 가곡리 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pp. 415~416.
- 한옥민, 2016, 『영산강유역 고분의 분형과 축조과정 연구』,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pp. 18~116.
- 함순섭, 1995, 「Ⅵ. 고찰」, 『청당동 Ⅱ』, 국립중앙박물관, pp. 106~107.
- 허진아, 2019, 「초기철기-원삼국시대 구슬 해상교역과 환향해권 정치 경관의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106, 한국상고사학회.
- 홍보식, 2013, 「고총고분의 봉분 조사방법과 축조기술」,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대한문화재연구원, pp. 60~62.
- 호남고고학회, 2002, 『東아시아의 周溝墓』 창립10주년기념국제학술대회.
- 한국고고학회, 2006, 『분구묘·분구식 고분의 신자료와 백제』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보고서·단행본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2, 『오산 수청동 백제분묘군』.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천안 두정동 유적』.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海美 機池里 遺蹟』.
- 국립광주박물관, 1993, 『영암 신연리 9호분』.
- 국립경주박물관, 2003, 『慶州 朝陽洞 遺蹟 Ⅱ』, 國立慶州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3冊.
- 국립공주박물관, 1995, 『下鳳里 Ⅰ』.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羅州 東谷里 橫山古墳』.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堂丁里』.
- 국립중앙박물관, 1995, 「天安 淸堂洞遺蹟 I 段階 調查報告」, 『淸堂洞 Ⅱ』.
-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20, 『아산 공수리 유적』.
- (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고창 봉산리 황산유적 Ⅱ·Ⅲ』.
-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무안 인평 고분군』.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영광 군동유적』.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함평 월야 순춘유적』.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무안 고절리 고분』.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5, 『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1993年度 發掘調査-』.
- (재)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서산 예천동 유적』.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경주 덕천리유적Ⅱ-목관묘-』.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山 新垈里遺蹟Ⅱ』.
-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2, 『곡성 대평리 유적』.
- 전남대학교박물관, 2004,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 『상운리 Ⅰ·Ⅱ·Ⅲ』.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고창 남산리유적-분묘-』 .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부안역리옥여유적』 .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오산 킨동 유적』 .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청주 오송 유적』 .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9, 『인천 검단 원당동 유적』 .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 『익산 영등동 유적』 .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2, 『율촌리 분구묘』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8, 『서산 부장리 유적』 .
- 충청문화재연구원, 2011, 『아산 용두리 유적』 .
- 충남대학교박물관, 2006, 『弓洞』 .
- 충북대학교박물관, 2007, 『忠州 金陵洞遺蹟』 .
-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公州 長院里 遺蹟』 .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운양동 유적』 .
-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7, 『연기 대평리 유적』 .
-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平澤 馬頭里 遺蹟』 .
-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홍성 석택리 유적』 .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나주 용호고분군』 .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고창 만동유적』 .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군산 축동유적』 .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하남동 유적Ⅱ』 .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김제 산치리·양청리·나제리 유적』 .

‘마한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비교로 본 개념과 계통성’에 대한 토론문

남호현(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토론자는 한반도의 고대 도성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서생으로 최근까지는 한양도성과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었으나 소속기관의 인사발령에 따라 최근 완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중엽 선생님의 토론자로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지만 올해부터 완주 상운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담당하게 되었기에 견문을 넓히려는 주변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구토광묘까지 다루는 것은 토론자의 공부가 얕아 본 토론은 제가 분구묘를 공부하며 느꼈던 의문점, 최근 상운리 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점에 대해 토론의 형식을 빌려 질의하는 형식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 서산 기지리와 상운리에서 보이는 분구 조성방법의 차이점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는 학생시절 서산 기지리 발굴조사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 희미한 기억이지만 매장주체부가 분구보다 먼저 들어서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시굴조사한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의 경우, 이전 전북대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인된 매장시설은 조성한 분구를 뒤따고 들어선 양상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근본적인 매장관념이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구묘 조성의 개념 다시말해 대지 조성 등의 준비, 매장시설 조성, 마무리 성토로 이어지는 매장관념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덤조성에 있어 이러한 절차는 분구묘 뿐만이 아니라 봉분이 있는 대부분의 무덤이 가지는 기본개념으로 보여집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분구묘의 매장개념, 정확하게는 분구묘 이전 및 이후 단계의 고분과분구묘가 가지는 매장개념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 2 : 분구묘 및 주구토광묘의 매장주체부의 구별 기준에 대한 의견

토광묘로 분류되는 매장주체부는 발표자가 제시하신데로 목관이나 목곽, 혹은 토광(혹은 점토곽) 등으로 분류되거나 혹은 그냥 토광묘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발굴 당시, 목질의 흔적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분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의적인 구분으로 많은 보고서에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상운리의 경우, 점토곽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그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적인 연구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의에 기반한 분류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론자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질의사항이 몇가지 있지만 종합토론 시간을 빌어 다시한번 고견을 청할까 합니다.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 - ‘수용’과 ‘배제’의 관점에서 -

홍창우(전남대학교 사학과)

- I. 머리말
- II. 후고구려 관련 기록 검토
- III. 후고구려 인식의 배경
- IV. 맺음말

I. 머리말

『제왕운기』는 중국[帝]과 우리나라[王]의 역사를 시의 형태로 읊은[韻紀] 일종의 詠史詩로, 이승휴(1224~1330)가 지어 충렬왕 13년인 1287년에 진상한 사서이다.¹⁾ 상·하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상권에서는 중국의 盤古에서부터 元 당대까지의 역사를 7언시로 읊었다. 하권은 그들의 지리적 환경을 간단히 언급한 地理紀를 서두로 삼고, 前·後·衛滿의 朝鮮을 필두로 하여 漢四郡, 삼한, 신라·고구려·백제, 후고구려·후백제, 발해의 역사를 역시 7언시로 노래한 東國君王開國年代, 그리고 고려 태조의 조상으로부터 당대 충렬왕까지의 사적을 先代紀·歷代紀·今代紀로 나눠 5언시로 노래한 本朝君王世系年代로 편성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왕운기』는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시로 읊은 두 권짜리 시집인 셈이다.”²⁾

이 글에서는 고려 이전의 역사를 기술한 하권의 동국군왕개국연대에서 궁예의 후고구려가 독립된 조목으로서 ‘편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승휴는 高句麗紀를 통해 시조 東明으로부터 마지막 寶藏王에 이르는 ‘28왕 705년’ 고구려의 ‘太平’을 기술한 다음, 後高麗紀를 곧바로 배치해 ‘경문왕의 서자’ 궁예의 ‘28년’ 행적을 언급하였다. 전·후 고구려 사이의 ‘國系’에 유의한 것으로, 뒤이어 같은 논리를 동원해 백제사를 정돈한 것도 얼른 눈에 들어온다. 물론 후고구려의 역사가 『제왕운기』의 세계에 ‘수용’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연구의 당위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비슷한 시기의 또 다른 사서인 『삼국유사』의 체제를 예거해봄으로써 문제의식의 공유에 힘을 실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삼국유사』 기이편은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삼한 등 여러 정치체와 삼국의 흥망, 그리고 후백제와 가야의 부침을 서술하고 있다. 『삼국유사』가 현재의 연구자들에게 ‘역사서’로서의 자질을 획득하

1) 『제왕운기』 帝王韻紀進呈引表, “至元二十四年三月日 頭陀山居士 臣 李承休”.

2) 김보광, 「『제왕운기(帝王韻紀)』, 새로운 역사 인식의 등장」 『내일을 여는 역사』 69(2017), 177~178쪽.

게 된 배경을 이 기이편의 설정에서 찾기도 하거니와,³⁾ 일연은 기이편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교적 異蹟이 전개되었던 시·공간적 배경의 제시를 의도했던 것이다.⁴⁾ 이 가운데 기이편의 후반부에서는 金傳大王조를 두고 후백제왕 견훤의 경주 침공과 그에 따른 경애왕의 시해, 그리고 경순왕의 고려 귀부를 서술하여 ‘신라’의 역사를 마무리하였다. 그 뒤에는 南扶餘前百濟조, 武王조, 後百濟甄萱조 등 ‘백제’와 관련이 있는 조목들을 배치하여 전·후 백제사도 매듭지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삼국’을 구성하고 있는 남은 국가인 전·후의 ‘고구려’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의 흥망을 정돈한 조목을 편성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이편 찬자들은 신라와 백제의 역사를 종결한 후 駕洛國記조를 두어 오히려 가야사를 배려하였다. 그러므로 후삼국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 가운데 오직 궁예와 그가 세운 후고구려만이 기이편의 서술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따라서 『제왕운기』가 고려 이전의 사적을 서술한 동국군왕개국연대에서 후고구려사를 ‘수용’한 반면, 『삼국유사』의 경우 그들의 예전 토대를 언급한 기이편에서 이를 ‘배제’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두 사서가 동일한 체제를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평면적 대비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두 책은 무신집권기에 재발한 ‘삼국부흥운동’으로 인해 일통왕조인 고려가 다시 삼국으로 각립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몽골[원]으로 대표되는 이민족의 침략과 유린으로 인해 왕조 자체의 존망마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아마 兩書가 공히 민족의 시원을 단군에서 찾고 그 이후 정치체들을 일원적으로 파악하려 한 배경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고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 정립을 요구받고 있던 즈음 궁예의 후고구려를 호명하는 방식의 차이는 마땅히 주목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왕운기』가 후고구려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고나 이것이 후고구려 관련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 글에서 유의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제왕운기』가 전하고 있는 이른바 ‘금성도읍설’을 언급한 논고⁵⁾가 후고구려 역사 복원의 맥락에서 『제왕운기』를 주목한 유일하면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제왕운기』의 체제를 설명하거나 이승휴의 생애, 역사인식, 사상, 영향 등을 밝히려는 시도에서 후고구려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간 『제왕운기』를 매개로 하여 축적된 양·질의 연구 업적⁶⁾에 비해 의아할 정도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다. 아마도 『제왕운기』 후고구려 관련 기록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뿐더러, 『제왕운기』 자체의 사료가치 문제⁷⁾ 또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3) 李基白,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韓國史學의 方向』(一潮閣, 1978);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韓國古典研究 - 『三國遺事』와 『高麗史』 兵志』(一潮閣, 2004).

4) 이강래, 「本史와 遺事」 『三國史記 形成論』(신서원, 2007), 463쪽; 「『삼국유사』 기이편의 자료 수용 방식」 『한국고대의 시선과 시각』(주류성, 2021), 293쪽.

5) 조인성,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과 관련한 두 문제」 『태봉의 궁예정권』(푸른역사, 2007), 182~186쪽.

6) 『제왕운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박인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2011). 또한, 역사학계와 국문학계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출간한 다음의 저서도 최근의 성과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편, 『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세창출판사, 2019).

7) 李基白 外,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47~48쪽의 천관우와 이기백의 발언; 邊東明, 「李承休의 『帝王韻紀』 撰述과 그 史書로서의 性格」 『震檀學報』 70(1990), 39쪽; 김보광, 앞의 논문(2017), 187~188쪽.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은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을 겨냥한다. 이를 위해 『제왕운기』 내에 후고구려와 관련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적출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려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승휴가 후고려기를 작성할 때 어떠한 전거를 참고했는지와 같은 자료 취급의 맥락에 유의해볼 작정이다. 따라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고려사』 등 인접 사서에서 보이는 관련 정보들과의 적극적인 비교·검토가 병행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왕운기』 찬자가 후고구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려 한다. 해당 논의에서는 이승휴의 1273년 원 사행과 이를 전후하여 간취되는 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목해볼 예정이다. 이에 이승휴의 문집에 보이는 그의 행적 추적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후고구려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이 글에서는 “거의 同時의 撰”⁸⁾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보여주는 ‘수용’과 ‘배제’라는 양면성의 맥락을 시종일관 놓치지 않고자 한다.

II. 후고구려 관련 기록의 검토

『제왕운기』에서는 동국군왕개국연대의 후고려기, 新羅紀와 본조군왕세계연대의 선대기, 역대기에 후고구려가 언급되고 있다. 논의의 편의상 후고려기부터 살펴본다. 후고려기는 모두 140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곳에 분주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의 측면에서 『삼국사기』 궁예전의 줄거리로부터 크게 벗어나있지 않다. 궁예가 신라의 왕자 출신이라는 점, 태어나자마자 궁중에서 쫓겨난 점, 절에 의탁하던 시절 왕이 된다는 조짐을 경험한 점, 양길에게 투신했다가 나라를 세운 점, 포악·방자한 일을 일삼다 고려 태조에 의해 쫓겨난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주의할만한 대목들이 있다.

먼저 궁예의 아버지를 경문왕으로 특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헌안왕 또는 경문왕이라고 소개한 뒤 어느 누구로 특정하지 않았던 『삼국사기』 궁예전과 다른 모습이다.⁹⁾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2명일 수는 없으므로, 궁예전의 두 설 가운데 어느 하나는 잘못이다. 물론 둘 다 잘못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전혀 다른 역사적 사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지으면서 ‘國史’인 『삼국사기』¹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¹⁾ 후고려기에서도 궁예가 귀의한 興敎寺에 대해 “옛날의 善達寺이다. 혹은 부석사라고도 하는데, ‘國史’로서 바로 잡는다”¹²⁾라고 분주한 대목이 보인다. 그러므로 그가 『삼국사기』에 소개된 궁예의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 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8) 崔南善, 「附錄 帝王韻記(鈔)」 『新訂 三國遺事』(三中堂, 1943), 39쪽.

9) 『삼국사기』 50, 열전 10, 궁예전, “弓裔 新羅人 姓金氏 考第四十七憲安王諱靖 … 四十八景文王膺廉之子”.

10) 『제왕운기』에 보이는 ‘國史’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가리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韓永愚, 「15世紀 官撰 史書 편찬의 추이」 『朝鮮前期史學史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28쪽 ; 金潤坤, 「羅代의 寺院莊舍 - 浮石寺를 중심으로」 『考古歷史學志』 7(1991), 274쪽 ; 조인성, 앞의 논문(2007), 184쪽 ; 정구복, 「이승휴의 역사관」 『韓國史學史學報』 21(2010), 15쪽 ; 郭丞勳,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震檀學報』 111(2011), 49쪽. 한편, 이 ‘국사’를 『삼국사기』가 아닌 『구삼국사』로 판단한 견해도 있다. 박인호, 「고려시기 사서에 나타난 역사지리인식」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이회문화사, 2003), 110쪽 ; 「『제왕운기』에 나타난 이승휴의 역사지리인식」 『朝鮮史研究』 18(2009), 15쪽.

11)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謹據國史 旁採各本紀與殊異傳所載 …”.

12)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려기, “古之善達寺也 或云浮石寺 以國史爲定”.

궁예전 작성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고증이나 판단을 포기한 것과는 달리, 이승휴는 경문왕설을 따랐다. 『삼국사기』의 출현을 통해 궁예의 부계에 대한 이설이 소개된 이래, 현안왕과 경문왕 가운데 어느 한 인물을 궁예의 아버지로 지목한 최초의 사례이며, 종종 경문왕설을 주장하는 논고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¹³⁾ 다시 말하여 이승휴는 궁예의 부계를 경문왕으로 지목한 최초의 논자인 것이다. 물론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므로 이승휴가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알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승휴에게 『삼국사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승휴가 궁예의父를 경문왕으로 특정하긴 했으나 궁예를 ‘신라 왕자’라고 한 『삼국사기』의 논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둔다.

다음으로 궁예의 건국과 관련한 편년과 국호 그리고 도읍의 문제이다. 이승휴는 궁예가 “당 소종 대순 원년 경술에 ‘後高麗’를 일컬으며 왕의 깃발을 세웠다네”¹⁴⁾라고 노래하였다. 당나라 19대 황제인 昭宗의 연호 大順은 890년을 원년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면 궁예는 890년 후고구려를 건국한 것이 된다. 이 연대는 『삼국유사』 王歷에서 궁예가 ‘良吉’의 주둔지에 투신했다고 한 연대 경술년¹⁵⁾과 함께 궁예·후고구려와 관련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특정 편년이다. 그런데 후고려기 말미에서는 양 정명 4년 무인년(918)을 궁예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 ‘28년’이 흐른 해라고 했다.¹⁶⁾ 대순 원년인 890년을 기점으로 삼았을 때 정명 4년인 918년은 ‘29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므로 원문의 ‘二十有八年’에서 ‘八’은 ‘九’의 오기이거나 혹은 이승휴가 계산에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겠다.¹⁷⁾

다만, 『삼국사기』 궁예전의 말미에는 열전 찬자가 궁예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궁예는 당 대순 2년(891)에 일어나 朱梁 정명 4년(918)에 이르기까지 무릇 28년 만에 멸망하였다”¹⁸⁾라고 하였다. 이승휴가 『삼국사기』를 중시 여겼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정보를 토대로 궁예 초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가 『삼국사기』의 대순 2년을 대순 원년으로 잘못 파악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승휴는 대순 원년에 대해 경술이라는 간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옳게 적었다. 또한 『삼국사기』의 경우 대순 2년은 궁예가 도적에게 투신한 해이지만, 『제왕운기』에서는 대순 원년이 궁예가 ‘후고려’를 건국한 해이므로 지시하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궁예가 ‘대순 원년’에 ‘후고려’를 건국했다는 후고려기의 정보가 『삼국사기』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궁예의 활동 기간을 명시한 『삼국사기』 궁예전 말미의 정리를 이승휴가 별다른 검토 없이 인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 ‘후고려’ 건국 기사 바로 앞에는 별도의 연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궁예가 복원의 ‘良吉’에게 투신했다고 하였다.¹⁹⁾ 그러므로 『제왕운기』의 논리대로라면 궁예의 투탁 시점은 ‘후고려’ 건국 연대인 890년보다도 이른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한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투탁 관련 정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궁예의 투탁과 관련한 기사들을 개입시켜보면 더 복잡해진다. 신라 본기에 따르면 궁예는 眞聖王 5년인 891년 10월에 梁吉의 보좌관으로서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²⁰⁾ 신라본

13) 吳永淑, 「泰封國形成과 弓裔의 支持基盤」,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85), 13~14쪽 ; 이도학, 『궁예 진흥 왕건과 열정의 시대』(김영사, 2000), 19쪽.

14)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려기, “唐召大順元庚戌 稱後高麗立王旌”.

15) 『삼국유사』 1, 왕력, 後高麗弓裔, “大順庚戌 始投北原賊良吉屯”.

16)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려기, “至梁貞明四戊寅 二十有八年光更”.

17) 이러한 치세 기간 산정의 오류는 동국군왕개국연대의 前朝鮮紀에서도 확인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승휴는 단군이 堯임금 戊辰에 나라를 세워 殷 武丁 8년 乙未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고 단군의 향국 기간을 ‘1,028년’으로 계산한 다음, 이로부터 164년 뒤에 기자가 와서 後朝鮮을 건국했다고 하였다. 요의 즉위 연대나 은 무정 8년의 간지 문제는 고금을 관통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승휴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단군의 치세 기간은 1,048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18) 『삼국사기』 50, 열전 10, 궁예전, “弓裔起自唐大順二年 至朱梁貞明四年 凡二十八年而滅”.

19)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려기, “名本善宗改弓裔 投北原(今原州也)賊梁吉兵(吉委任 故傳其兵)”.

기에 보이는 궁예의 첫 번째 행적이다. 그런데 궁예전 작성자는 891년에 궁예가箕萱이라는 세력에 의탁했으며, 양길에게 투신한 것은 그 이듬해인 892년의 일이라고 했다.²¹⁾ 견훤전 찬자 역시 궁예가 892년에 양길에게 투탁했다고 하여 궁예전의 기록을 지지하고 있다.²²⁾ 연표에서는 특정 세력을 지시하지 않은 채 891년에 단지 ‘賊’에게 투신했다고 하여²³⁾ 독자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²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후고구려와 관련하여 ‘890년’을 기년으로 하는 그 어떠한 사적을 적어도 『삼국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대순 원년 경술’(890)에 ‘후고려’를 세웠다고 한 『제왕운기』의 정보는 『삼국사기』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 『삼국사기』는 ‘天祐 원년 甲子’(904)에 제정한 국호 ‘마진’을 궁예의 첫 번째 국호로 인식하였다.²⁵⁾ 그렇다면 『제왕운기』 편찬 시점인 13세기 후반에는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에 대해 『삼국사기』와는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이종의 자료가 존재했었고, 무엇인지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이승휴가 확보해놓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를 존중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승휴가 그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가 있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끝으로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타 사서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정보의 존재이다. 궁예의 이른바 ‘금성도읍설’과 관련한 대목으로 시선을 옮겨본다.

· 처음에는 金城에 주둔하여 나날이 땅을 넓혔고, 거점을 옮겨 鐵郡에서 새로 수도를 열었다네.²⁶⁾

· 세조(이름은 隆이며, 어질 적 이름은 용건이다.)는 신라시절 금성의 성주가 되었는데, 궁예가 복원으로부터(와서) 이곳에 나라를 열었다가 철원군으로 도읍을 옮겼다네.(지금의 東州이다. 내가 일찍이 이 주를 지킬 때 두 번 금성을 유람하였는데, 두 고을의 사람들이 역력하게 말을 전해주었다.) 관인과 백관을 임명하니 이로 인하여 궁예의 조정에서 벼슬하였도다.²⁷⁾

먼저 제시한 후고려기의 사료는 앞서 소개했던, 궁예가 ‘890년’에 ‘후고려’를 세운 정보 뒤에 배치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후고려’의 첫 거점이 ‘금성’이었으며 이후 ‘철군’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제시한 선대기에서는 궁예가 ‘복원’에서 ‘금성’으로 와 나라를 열었다가 ‘철원군’으로 천도했다고 옮겼다. 철군, 즉 철원군을 ‘새 수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승휴는 그 이전의 금성을 궁예의 ‘옛 수도’로 본 것 같다. 이를 종합해보면 그는 궁예가 복원 → 금성 → 철원 순으로 거점을 옮겼다고 이해했고, 그곳들을 모두 궁예의 수도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890년 후고려 건국’ 정보와 마찬가지로 이 ‘금성도읍설’은 ‘국사’인 『삼국사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 『삼국사기』 11, 신라본기 11, 진성왕 5년, “冬十月 北原賊帥梁吉 遣其佐弓裔 領百餘騎 襲北原東部落及溟州官內 酒泉等十餘郡縣”.

21) 『삼국사기』 50, 열전 10, 궁예전, “以眞聖王卽位五年 大順二年辛亥 投竹州賊魁箕萱 箕萱悔慢不禮 善宗鬱悒不自安 … 景福元年壬子 投北原賊梁吉”.

22) 『삼국사기』 50, 열전 10, 견훤전, “唐昭宗景福元年 是新羅眞聖王在位六年 … 是時 北原賊良吉雄強 弓裔自投爲麾下”.

23) 『삼국사기』 31, 연표 下, “辛亥 弓裔始起投賊”.

24) 이상의 내용과 이에 따른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홍창우,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기록의 계통 검토」 『한 국고대사탐구』 27(2017), 353~356쪽.

25) 홍창우, 「『삼국유사』의 후고구려 인식」 『歷史學研究』 62(2016), 101쪽.

26)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려기, “初屯金城日關土 轉宅鐵郡新開京”.

27) 『제왕운기』 下, 본조군왕세계연대, 先代紀, “世祖〔諱隆 小宗龍建〕於羅時 金城承錦寄 弓裔自北原 開國於是地 移都鐵原郡〔今東州也 臣嘗守是州 而再遊金城 二邑人歷歷傳說〕 官人以百揆 因仕裔之朝”.

· (건녕) 4년 정사(897)에 … 선종이 이르기 “松岳郡은 漢北의 이름난 군으로 산수가 기이하고 빼어나다.”라고 하며 마침내 정하여 도읍으로 삼았다.²⁸⁾

· 천우 원년 갑자(904) … 가을 9월에 청주인 1천호를 이주시켜 철원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수도로 삼았다. (이상 궁예전)²⁹⁾

· (효공왕) 2년(898) … 가을 7월에 궁예가 패서도 및 한산주 관내 30여 성을 빼앗고, 마침내 松岳郡에 도읍하였다.³⁰⁾

· (효공왕) 9년(905)에 …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상 신라본기)³¹⁾

· 무오(898) 궁예가 松嶽郡에 도읍하다.

· 을축(905) 궁예가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다. (이상 연표 下)³²⁾

인용한 사료군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사기』는 열전, 본기, 연표 모두 궁예가 ‘송악’을 첫 번째 도읍지로 삼았다가 ‘철원’으로 옮겼다고 서술하였다. 물론 궁예전과 신라본기·연표 사이에 각각 1년의 차이가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궁예의 도읍 변경을 송악 → 철원으로 본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 병진(896) 철원성(지금의 동주이다.)에 도읍하다.[都]

· 정사(897) 도읍을 송악군으로 옮기다.[移都]

· 갑술(914) 철원으로 돌아오다.[還] (이상 『삼국유사』)³³⁾

· 이때 신라는 정치가 쇠락하여 도적 떼가 다투어 일어났으니 … 궁예는 고구려 지역에서 웅거하여 철원에 도읍하고[都] 국호를 태봉이라 하였다. 세조는 그때 송악군의 사찬이었는데, 건녕 3년 병진(896)에 군을 들어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 광화 원년 무오(898) 궁예가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다.[移都]

· 천우 2년 을축(905) 궁예가 철원으로 환도하였다.[還都] (이상 『고려사』)³⁴⁾

궁예의 도읍 선정과 이전을 전하고 있는 『삼국유사』와 『고려사』의 정보를 모아본 것이다. 상호 간의 연대 차가 제법 심하나, 두 사서 모두 궁예가 철원에 도읍한 다음 송악으로 옮겼다가 다시 철원으로 돌아왔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궁예정권의 수도 변천을 철원[都] → 송악[移都] → 철원[還都]으로 이해한 것은 『삼국사기』의 논리와 다르지만, 적어도 금성을 도읍이나 근거지와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역시 같은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고려사』 사이에는 궁예정권의 도읍 변천 추이나 각 도읍의 시기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긴 하나, 세 자료 어디에서도 『제왕운기』가 말하고 있는 ‘금성도읍설’을 확인할 수 없다. 즉, ‘금성도읍설’은 오로지 『제왕운기』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주장인 것이다.

28) 『삼국사기』 50, 열전 10, 궁예전, “四年丁巳 … 善宗謂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以爲都”.

29) 『삼국사기』 50, 열전 10, 궁예전, “天祐元年甲子 … 移靑州人戶一千 入鐵圓城爲京”.

30) 『삼국사기』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2년, “秋七月 弓裔取溟西道 及漢山州管內三十餘城 遂都於松岳郡”.

31) 『삼국사기』 12, 신라본기 12, 효공왕 9년, “秋七月 弓裔移都於鐵圓”.

32) 『삼국사기』 31, 연표 下, “戊午 弓裔都松嶽郡”; “乙丑 弓裔移都鐵圓”.

33) 『삼국유사』 1, 왕력, 후고려궁예, “丙辰 都鐵圓城(今東州也)”; “丁巳 移都松岳郡”; “甲戌 還鐵原”.

34) 『고려사』 1, 세가 1, 태조 즉위전, “時新羅政衰 群賊競起 … 弓裔據高句麗之地 都鐵圓 國號泰封 世祖時爲松嶽郡 沙磧 乾寧三年丙辰 以郡歸于裔”; “光化元年戊午 裔移都松嶽”; “天祐二年乙丑 裔還都鐵圓”.

이승휴가 궁예의 ‘금성도읍설’에 대한 내용을 접한 경로는 뜻밖이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선대기에서 “일찍이 이 주(東州 - 인용자)를 지킬 때 두 번 금성에 놀러 갔는데, 두 고을 사람들이 역역하게 전하여 말해주었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승휴는 원종 대에 楊廣道·忠淸道의 안렴사를 역임할 당시 부패를 저지른 贓吏 7명을 탄핵하고 그들의 가산을 적몰했다가 역풍을 맞고 東州副使로 폄출된 적이 있다.³⁵⁾ 그가 ‘動安居士’라 自號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사료에 정확한 연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승휴가 이 직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동주부사로 좌천되었다가 ‘얼마 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殿中寺史에 임명된 것으로 볼 때,³⁶⁾ 동주에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어찌됐든 그는 동주부사 재임 시절에 두 차례에 걸쳐 금성을 유람하였고, 그때 그 일대의 사람들에게 궁예의 ‘금성도읍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던 것이다.

현재 강원도 김화군 금성면 일대로 비정되는³⁷⁾ 금성은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을 때의 母城郡으로 신라 경덕왕이 益城郡으로 고친 곳이며,³⁸⁾ 고려시대에는 郡과 縣으로의 승강을 오갔다.³⁹⁾ 『삼국사기』에 따르면, 궁예가 이 금성을 포함하여 저족·성천·부악·철원 등의 일대를 손에 넣은 것은 895년의 일이다.⁴⁰⁾ 이에 궁예의 진출로가 한주와 패서 일대인 것을 고려해서, 이 지역 점령을 위해 궁예가 근거지로 삼은 곳을 금성으로 추정된 뒤 『제왕운기』의 ‘금성도읍설’이 이로 인해서 유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⁴¹⁾ 그런데 이승휴가 ‘국사’ 『삼국사기』의 도움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전해들은 ‘금성도읍설’을, 그것도 ‘역역’하게 들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특기해놓은 것으로 볼 때, 그는 이 설을 대단히 의아하게 여겼던 것 같다. “지금까지 아직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선 분명하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근거로 삼아 읊조림에 맞도록 하였다”⁴²⁾라고 밝힌 『제왕운기』 상권의 서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가 중시 하였던 『삼국사기』를 비롯한 ‘국사’에 이런 사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⁴³⁾에 본인의 경험을 들면서까지 이 설을 언급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후고려기는 궁예의 탄생에서부터 890년 건국과 도읍지 선정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다음 돌연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후고려’의 사적을 마무리하고 있다.

양 정명 4년(918) 무인에 이르기까지 28년 흘렀으니, 포악하고 방자한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태조를 위해 온 백성을 몰아다 주었도다.⁴⁴⁾

35) 『고려사』 106, 열전 19, 諸臣, 이승휴전, “累遷右司諫 出按楊廣忠淸二道 劾贓吏七人 籍其家 由是 怨讟頗興 尋貶 東州副使 自號動安居士”.

36) 『고려사』 106, 열전 19, 제신, 이승휴전, “… 頃之 徵拜殿中侍史 條陳十事 又上疏極論利害 忤旨罷歸龜洞舊隱”. 이승휴 열전에 따르면 원종 15년인 1274년의 편년 아래 동주부사로의 좌천과 전중시사로의 임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시점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승휴의 연보는 아래의 논고에서 도움을 받았다. 邊東明, 앞의 논문(1990), 22~23쪽; 柳柱姬, 「李承休의 生涯」 『李承休研究論叢』(三陟市, 2000), 347~352쪽.

37)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역주 삼국사기 4』(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285쪽.

38) 『삼국사기』 35, 잡지 4, 지리 2, 신라, “益城郡 本高句麗母城郡 景德王改名 今金城郡”.

39) 『고려사』 58, 지 12, 지리 3, 교주도, 교주 금성군, “顯宗九年 陞爲郡 後降爲縣 來屬”.

40) 『삼국사기』 11, 신라본기 11, 진성왕 9년, “八月 弓裔擊取猪是狝川二郡 又破漢州管内夫若鐵圓等十餘郡縣”; 『삼국사기』 50, 열전 10, 궁예전, “… 於是 擊破猪足狝川夫若金城鐵圓等城 軍聲甚盛 現西賊寇來降者衆多”.

41) 조인성, 앞의 논문(2007), 185~186쪽.

42) 『제왕운기』 上, 并序, “若夫今之未著方策者 姑以彰彰耳目所熟爲據 播于諷詠”.

43) 조인성, 앞의 논문(2007), 185쪽.

44)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려기, “至梁貞明四戊寅 二十有八年光更 莫愧邇來尤暴恣 爲我太祖驅蒼生”.

건국 이후 궁예의 행보와 '후고려'의 사적이 모두 생략된 채, 918년에 고려 태조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후고려기만의 정보로는 후고구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후고려기 이외에 후고구려를 언급한 대목은 역사적 사실 정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후고구려와 궁예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

태조(휘는 건, 시호는 신성대왕)께서 (궁예로부터) 元帥를 제수받아 싸움 없이 여러 곳을 정복하시니 공업이 창성하였도다. 궁예가 이에 날로 방자하고 포악하니 민심은 솔에 물 끓듯 하였다네. 그때 네 명의 공신(배현경·홍유·복지겸·신승겸이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깊이 탄식하여, 거란 神冊 3년인 주량 貞明 4년(918) 무인 6월 보름에 단연히 함께 거사를 일으키고, 우리 태조의 사저(지금의 봉선사다.)에 이르러 왕위에 추대하였다네. 기약 없이 모인 자들이 3천여 보·기병이니 마치 가뭄에 비구름을 바라는 것과 같아 사방에서 앞 다투어 기다리고 기뻐하네. 정벌에 나선 지 18년, 삼한이 통일되었도다.⁴⁵⁾

918년 6월에 있었던 왕건의 '擧義'와 이후 후삼국 통일을 이룩했다는 본조군왕세계연대의 역대기 기록이다. 『삼국사기』 궁예전 말미의 서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삼국사기』와의 차이를 들여보라 한다면, 태조의 거사에 동참한 자들의 수를 '3천여 보·기병'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삼국사기』가 '그 수를 알 수 없고' 미리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1만여 명'이라 한 것 정도이다.⁴⁶⁾ 그만큼 이 거병에 가담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려주며, 인원의 다과와 무관하게 궁예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왕건을 향한 폭발적 민심을 드러내 왕건이 거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그 진의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삼국사기』가 제시한 궁예 축출의 명분과 논리가 『제왕운기』 단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동국군왕개국연대의 후고려기 말미에 보이는 '驅蒼生'의 용법은 궁예·견훤 두 인물에 대한 『삼국사기』 사론에서의 '歐民者'⁴⁷⁾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 대목은 "연못을 위해 물고기를 몰아다 주는 것은 수달[獺]이고, 숲을 위해 참새를 몰아다 주는 것은 새매[鷗]이며, 탕·무를 위해 백성을 몰아다 주는 것은 걸·주이다"⁴⁸⁾라고 한 『맹자』를 원용한 것이다. 이에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궁예를 어질지 못하다[不仁]고 평했거니와,⁴⁹⁾ 이와 비슷한 평가가 『제왕운기』에서도 보인다.

오랫동안 이어나간 (신라의) 원대한 왕업, 장차 쇠퇴하고 궁예와 견훤이 임금을 향해 사납게 짓어대니, 민심은 흥흥하여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도다.⁵⁰⁾

45) 『제왕운기』 下, 본조군왕세계연대, 역대기, “太祖(諱建 諡神聖大王)除元帥 不戰服諸方 功業昌而熾 裔乃日肆虐 民心如鼎沸 惟時四功臣(裴玄慶洪儒卜 智謙申崇謙也) 深嗟塗炭墜 契丹神冊三 朱梁貞明四 戊寅六月望 端然同擧義 詣我太祖家(今奉先寺也) 推戴即大位 不期而會者 三千步與騎 若旱之望雲 四方爭僭喜 徂征十八年 三韓同一軌”.

46) 『삼국사기』 50, 열전 10, 궁예전, “諸將扶衛太祖出門 令前唱曰 王公已擧義旗 於是 前後奔走來隨者 不知其幾人 又有先至宮城門鼓噪以待者 亦一萬餘人”.

47) 『삼국사기』 50, 열전 10, 견훤전, “論曰 … 雖項羽李密之雄才 不能敵漢唐之興 而況裔萱之凶人 豈可與 我太祖相抗歟 但爲之歐民者也”.

48) 『맹자』 離婁 上, “故爲淵歐魚者 獺也 爲叢歐爵者 鷗也 爲湯武歐民者 桀與紂也”.

49) 『삼국사기』 50, 열전 10, 견훤전, “論曰 … 弓裔本新羅王子 而反以宗國爲讎 圖夷滅之 至斬先祖之畫像 其爲不仁甚矣”.

50)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新羅紀, “瓜綿椒遠業將衰 裔萱向主行狂吠 群情洶洶未知歸”.

신라 출신이었음에도 신라의 왕업이 쇠락해지자 그때를 틈타 신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라 극론한 것이다. 결국 고려 중기의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군신 관계의 강조가 고려 후기의 이승휴에게도 여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궁예와 함께 후삼국시대를 구성했던 견훤과 경순왕에 대한 이승휴의 평가 역시 『삼국사기』의 그것을 방불케 한다.

· 강한 병사, 날카로운 기운으로 제멋대로 횡행하니, 후백제라 이름한 지 45년. 자식이 불량한 것을 어찌하리. 그 이름 신검인데 아비를 가두니, 金山寺 불전문 어느 누가 열어줄 것인가. … 청태 3년(936) 병신 봄에 푸른 강 물래 건너 우리 태조께 귀의했네. 왕의 예법으로 대접하고 조정에서 위로하며, 모지고 나쁜 자식 군사를 풀어 죽였도다. 죽음에 임박하여 피 토한들 어찌할 것인가. 가혹하도다! 거취의 의리 제대로 안 신라왕이여.⁵¹⁾

· 김부대왕이 능히 원대한 계책을 세웠으니, 후당 말제 청태 2년(935) 을미 한겨울에 우리 태조께 조하하였도다. … 922년, 56대 왕이 稱制하였다네. … 김새를 알고 약해졌으니, 진실로 훌륭하구나! 나는 탄식하노라. (고려의) 신하가 되어 두 임금을 섬겼다네. 개벽 이래 서책을 찾아보건대, 千古에 이러한 예는 없었도다.⁵²⁾

後百濟紀는 군사력의 우세함만을 믿고 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태조에게 귀의한 견훤의 비참한 최후를 소개하고, 이보다 1년 앞서 고려 조정에 귀순한 경순왕에 대한 포찬으로 서술을 종결하고 있다. 신라기에 서도 경순왕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전체를 관류하고 있다. 마치 경순왕이 고려 태조의 신하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한 나머지, 그가 신라의 국력을 의도적으로 손상하기에 이르렀다 한 것이나, 개벽 이래로 이와 같은 사례는 없었다며 감탄한 것은 『삼국사기』의 평가보다도 오히려 더 편향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궁예나 견훤과 달리 경순왕은 새 왕조의 질서에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편입된 인물로, 그가 보여준 행위는 고려인들에게 충실한 군신관계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지금까지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관련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제왕운기』는 기본적으로 후고구려에 대해 ‘국사’인 『삼국사기』의 설명과 인식에 굉장히 충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신라 경문왕의 아들인 궁예가 凶兆를 안고 태어났다 하여 왕실로부터 쫓겨났고 절간에서 숨어살던 중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경험한 뒤 사회로 뛰쳐나가 건국에 이르렀으나 포박하고 방자하여 태조에게 백성을 몰아다주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후고구려기는 거칠게 말하여 『삼국사기』 궁예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의 측면에서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점이 있지만, 엄밀히 따져 그러한 점들이 『삼국사기』를 비롯한 다른 사서들이 전하는 정보를 수정해야 할 정도의 자질을 지닌 것은 아니다.

요컨대, 『제왕운기』는 후고구려를 고려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삼국사기』의 시각에 공명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왕운기』는 왜 『삼국사기』의 후고구려 인식을 가감 없이 받아들였던 것일까? 이에 장을 달리하여 이승휴의 생애를 간단하게 짚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51)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후백제기, “兵强氣銳恣橫行 名後百濟四十五 有子不良將奈何 其名神劍乃幽父 金山佛殿戶誰開 … 清泰三年丙申春 偷渡碧江歸我祖 對以王禮慰於朝 往討賊子尸諸路 臨薨歐血那可追 美矣羅王知去就”.

52) 『제왕운기』 下, 동국군왕개국연대, 신라기, “瓜綿椒遠業將衰, 喬萱向主行狂吠, 群情洵洵未知歸”.

Ⅲ. 후고구려 인식의 맥락

지금의 경북 고령군 성산면 일대인 경산부 가리현⁵³⁾에서 1224년(고종 1)에 태어난 이승휴는 어린 시절을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에서 보냈다. 그러다 29세가 되던 1252년(고종 39)에 당시 知貢擧였던 崔滋와 同知貢擧 皇甫琦가 考試官으로 나섰던 문과 시험에서 乙科 2위로 통과하여 관계에 진출하였다.⁵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三陟에 있는 모친을 찾아보러 떠났던 이승휴는, 그러나 과거 급제 이듬해부터 다시 시작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강화도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 사이에 자신의 座主였던 최자는 1260년(원종 원년)에 사망하였고,⁵⁵⁾ 설상가상으로 '逆賊'에게 노략질을 당해 가산이 탕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⁵⁶⁾

이승휴가 관직에 나아간 것은 과거에 통과하고 무려 12년이 지난 1264년(원종 5)이 되어서였다. 이보다 1년 전인 1263년에 安集使 李深의 조언을 구해 또 다른 좌주 황보기에게 차자를 올렸고, 이에 황보기가 이승휴를 同文院修製로 추천한 것이다.⁵⁷⁾ 이승휴의 첫 관직인 동문원은 궁 안에 설비되어 學官이나 文翰을 담당했던 여러 기구 가운데 하나였다.⁵⁸⁾ 그 후에도 李藏用, 柳璈, 崔允愷, 韓就, 兪千遇 등 당대 이름난 인사들과 교류하였고, 이들의 추천을 받아 慶興大都護府判官兼掌書記에 발탁되기도 했다.⁵⁹⁾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 翰林院의 관원이었으므로,⁶⁰⁾ 이후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직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이승휴의 인생에서 변곡점을 들라 한다면 아마 1273년(원종 14)에 賀進使 王棕의 書狀官으로 발탁된 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해 3월에 원에서 황후와 황태자를 책봉하고 조서를 반포하자⁶¹⁾ 고려에서는 이를 하례하기 위해 원종의 아들인 順安侯 왕종을 하진사로 삼아 원에 가게 하였다. 『고려사』나 『원사』에서는 왕종과 同知樞密院事 宋松禮만이 확인되나,⁶²⁾ 이승휴가 남긴 『빈왕록』을 통해 이 사절단 구성원들의 면면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⁶³⁾ 이때 이승휴는 서장관으로서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⁶⁴⁾

53) 조선 후기의 趙從耘이 편찬한 『氏族源流』나 일제강점기 姜敦錫이 간행한 『典故大方』에서는 모두 이승휴를 加利李氏의 시조로 적고 있다. 趙從耘, 1991 『氏族源流』, 保景文化社, 72쪽, 「加利李氏(星州屬縣)」, “始祖 李承休(奉翊大夫密直副使翰林學士承旨 号勳安居士 又号容安堂 …)”; 『典故大方』 1, 「萬姓始祖編」, “加利(星州別號) 李氏始祖 承休(高麗時文科 忠烈王朝 密直副使 翰林學士)”.

54) 『동안거사집』 行錄 1, 「病課詩并序」, “交遊日廣 因受知於崔文清公(諱滋) 而虛名乃著 至壬子春 擢第於公之門下”.

55) 『고려사』 102, 열전 15, 제신, 최자전, “元宗元年卒 年七十三 諡文清”.

56) 『동안거사집』 行錄 1, 「病課詩并序」, “又爲東蕃逆賊所掠 蕩盡家資”.

57) 『동안거사집』 行錄 1, 「求官詩并序」, “越癸亥冬月 兵部李侍郎深以安集使 出鎮關東 素所不知 一言而善 謂曰 今明君在上 賢相當前 擢用人材 虛老窮山 以負君臣之義 其亦可乎 乃給僕馬 勸令入洛 其明年甲子正月 吾貳座主蓬庵皇甫相國(公諱琦 時已解政) 上笏子 差同文院修製”.

58)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8), 230쪽. 동문원은 金과의 외교를 위해 인종 7년인 1129년을 전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로 외교 문서의 작성이나 타국 사신의 접대와 같은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李貞薰, 「고려시대 금과의 대외관계와 同文院」 『사학연구』 119(2015).

59) 『동안거사집』 行錄 1, 「次韻安集使金中書(諱祿延)題竹軒并序」, “李柳崔韓四相國 六月下旬 同上笏子 而兪內相力奏天聰 以七月初八日 判差慶興都護府判官兼掌書記”.

60) 『동안거사집』 行錄 3, 「上朴承制并序」, “僕夙契金蘭 服勤螢雪 常蒙訓練 虛名乃著 由是求官 但期館翰 餘無望也”.

61) 『元史』 8, 本紀 8, 世祖 5, 至元 10년(1273) 3월 辛未, “以皇后皇太子受冊寶 詔告天下”; 『고려사』 27, 세가 27, 원종 14년(1273) 5월 壬申[21일], “元冊封皇后太子 遣使頒詔”.

62) 『고려사』 27, 세가 27, 원종 14년 윤6월 己未[9일], “遣順安侯棕 同知樞密院事宋松禮如元 賀冊封”; 『원사』 8, 본기 8, 세조 5, 지원 10년 7월 戊申, “高麗國王王禎遣其順安公王棕 同知樞密院事宋宗禮 賀皇后皇太子受冊禮成”.

왕종이 이끄는 사절단은 1273년 6월 9일에 원으로 떠나 10월 3일에 돌아왔다. 약 4개월 남짓한 체류 기간에 이승휴는 사절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원 관리와의 학문적 교류, 원의 명소 유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그 소회를 시나 글로 남겼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빈왕록』은 바로 이때 작성된 시문과 더불어 이승휴가 서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 『빈왕록』을 짓게 된 계기 등이 수록된 작품인 것이다. 특히 마르코 폴로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찬양한⁶⁵⁾ 瀟江 石橋를 비롯하여 昊天寺에 건립된 거대한 9층 목탑 등 원 곳곳에 형성된 문화유산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기회가 될 때마다 감회를 남겼고, 萬壽山 동쪽에 있는 황궁 長朝殿(大明殿)에 대해서는 “웅장한 규모와 극치의 정교함과 그 아름다움을 형언할 수 없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⁶⁶⁾ 아마도 이승휴의 1273년 원 사행은 원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듯하다.⁶⁷⁾

사실 어린 시절부터 몽골[원]의 침략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던 이승휴로서는 원에 대한 인식이 결코 호의적일 수 없었을 것이다.⁶⁸⁾ 이승휴에게 출사의 길을 막은 몽골 군대는 ‘胡兵’이었고,⁶⁹⁾ 재산마저 쓸어간 이들은 ‘逆賊’이었으며,⁷⁰⁾ 그들의 침략 행위는 ‘胡寇’에 다름 아니었다.⁷¹⁾ 즉, 몽골은 ‘오랑개’[胡]였던 것이다. 그런데 사행길에 오르기 3년 전인 1270년(원종 11)에 이승휴는 三別抄에 붙잡혔다가 탈출한 경험이 있다. 몽골과의 화친과 개경 환도를 반대했던 삼별초의 소요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바로 이들에 대한 진압 방안을 원종에게 올렸다.⁷²⁾ 원에 항쟁한 삼별초의 진압 작전을 바쳤다는 이 대목은 이승휴의 對元 인식에 대한 변화 계기로 종종 지목되기도 한다.⁷³⁾ 그러나 그보다는 앞서 원 사행으로 나섰던 경험과 더불어 이승휴의 인간관계 및 원종이 보여준 이승휴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시관인 좌주와 급제자인 문생 사이의 결속 관계가 형성된 것은 고려에 과거제가 시행된 뒤의 일이지만, 이들의 유대가 본격화되고 특히 정치 세력화 양상을 띤 것은 무신집권기 이후라고 한다.⁷⁴⁾ 고려 후기의 李穡이 ‘父子 관계’에 빗댄 정도로⁷⁵⁾ 이들 간의 관계는 각별했던 것이다. 앞서 이승휴는 최자가 고시관

63) 『동안거사집』 행록 4, 「賓王錄并序」, “至元十年癸酉春三月 上國冊立皇后皇太子 而普告天下 上命愛子順安侯某爲賀進使 其從行官屬 則知樞密院事御史大夫上將軍宋公松禮 尚書丞丞李汾成 精勇將軍鄭仁卿 內侍戶部員外廉承益 內侍保勝別將金義光 譯語行首郎將金富允 指諭別將趙瑊 精勇敢員池瑄 伴行使上朝千戶中郎將金甫成 皆朝廷之選也”.

64) 『고려사』 권106, 열전 19 제신, 이승휴전, “會王遣順安公悰如元 賀冊皇后太子 兩府薦承休爲書狀官 辭以老 王曰 歲庚午 書汝姓名于硯匣 今猶在案上 汝其勉哉 仍賜白金三斤遣之”.

65)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사계절, 2000), 355쪽.

66) 『동안거사집』 행록 4, 「빈왕록」, 8월 21일자, 8월 27일자, 8월 29일자 내용.

67) 이 사행은 고려와 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분수령으로 이해된다. 윤은숙, 「大元 使行을 통해 본 李承休의 현실 인식」 『인문과학연구』 36(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289쪽.

68) 이형우, 「13세기 고려 지식인 이승휴의 對元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34(2012), 280~286쪽.

69) 『동안거사집』 행록 1, 「病課詩并序」, “至壬子春 擢第於公之門下 乃歸觀眞珠府 其明年 胡兵梗路 綿年不退 由是未得還京”.

70) 『동안거사집』 행록 1, 「病課詩并序」, “又爲東蕃逆賊所掠 蕩盡家資 無以自振 因結茅於頭陀山麓龜洞龍溪之側而家焉”.

71) 『동안거사집』 행록 1, 「望武陵島行并序」, “越癸丑秋 因避胡寇 一方會守眞珠府蓼田山城”.

72) 『고려사』 권106, 열전 19 제신, 이승휴전, “三別抄之叛 陷賊中 脫走王所 元宗大悅 承休因獻策曰 待賊半過窄梁 遣精銳橫斷賊船 堅守江都 則前者勢孤 後者失據 前後不相應 賊可以破 王令兩府議 依違不行”.

73) 邊東明, 「李承休의 生涯와 著述」 『震檀學報』 99(2005), 138쪽.

74) 金塘澤, 「崔氏政權과 文臣」 『高麗武人政權研究』(새문社, 1987), 110쪽 ; 李楠福, 「고려후기의 좌주·문생」 『高麗後期 新興士族의 研究』(景仁文化社, 2004), 17쪽.

75) 『牧隱詩藁』 24, 詩, 「俞邁得罪於其座主光陽君 無所告處 來言於僕 觀其意 欲僕求解於其座主也 然門生之於座主 猶子之於父也 子得罪於父 豈有托旁人以求解者乎 但朝夕求哀 以俟其一旦慈愛之心之發耳 予領成均時 邁爲諸生 故

으로서 주최한 과거 시험에 급제했음을 말했다. 그런데 이 최자는 원과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⁷⁶⁾ 이승휴가 관직을 구하기 위해 글을 주며 접촉한 자 가운데 이장용 역시 원종이 친히 入朝하여 원과의 화친을 주도해야 함을 역설한 인물이며,⁷⁷⁾ 崔埴를 제거하고 金俊과 함께 정권을 잡았던 유경 또한 ‘對蒙和議論’자로 구분된다.⁷⁸⁾ 따라서 이승휴의 대원 인식 변화에는 그와 친분이 있던 자들의 성향이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국왕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원 사행을 위한 서장관을 임명할 때 원종은 中書門下省과 中樞院에서 추천한 자들을 거둬 물리치고 당시 여하한 관직이 없었던 ‘前’ 式目錄事 이승휴를 파격적으로 발탁하였다.⁷⁹⁾ 원종의 발언으로 미루어 이승휴의 평소 기재를 눈여겨본 듯한데, 이승휴로서는 사절단에 합류한 일에 대해 상당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⁸⁰⁾ 특히 兩府에서 추천된 인물들을 거르고 특별하게 자신을 임명한 국왕을 향한 충정심과 그에 따른 부담감이 컸을 것이며, 그러한 심정을 『빈왕록』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⁸¹⁾ 원종은 사행 단원들이 귀국한 뒤, 원 세조에게 올린 표문을 비롯하여 이승휴가 작성한 시문을 읽어보고 흡족해하며 그를 雜職署令兼都兵馬錄事에 임명하고 넉넉한 상을 내려주었다고 한다.⁸²⁾ 고려 왕실에서는 이 원 사행을 성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으며, 논공행상의 결과로 보았을 때 이승휴 역시 어느 정도는 원종의 믿음에 보답했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원에 다녀온 이후 이승휴는 원을 더는 오랑개로 보지 않았다.⁸³⁾ “그는 이제 원나라를 확실한 사대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⁸⁴⁾ 이는 『제왕운기』 상권에서 ‘우리 상국 대원’이라 하며, 고려의 덕이 원의 聖德에 힘입어 퍼졌다고 노래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⁸⁵⁾ 이승휴에게 원의 황제는 중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漢帝’에 다름 아니었다.⁸⁶⁾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승휴가 원의 전방위적 고려 지배를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원의 국력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온 그는, 원의 통제를 적절하게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고려적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⁸⁷⁾ 그는 귀국 후 1년이 지난 1274년에 원종이 사망하자, 이를 원에 알리기 위한 告訃使로

不忍自外 忠告如此」, “門生與座主 視猶骨肉親 …”.

76) 李益柱, 「高麗 對蒙抗爭期 講和論의 研究」 『歷史學報』 151(1995).

77) 『고려사』 102, 열전 15, 제신, 이장용전, “(元宗)五年 蒙古徵王入朝 王命宰相會議 皆持疑未決 藏用獨曰 王觀則和親 否則生釁”; 이승환,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푸른역사, 2009), 118~122쪽; 김승룡, 「이장용의 오도의식과 애상적 시 세계」 『고려 후기 한문학과 지식인』(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455~460쪽·486쪽; 고명수, 「고려 원종대 이장용의 외교활동」 『몽골-고려 관계 연구』(해안, 2019).

78) 강재광, 「金俊政權의 條件附 對蒙講和 체결과 그 歷史的 性格」 『한국중세사연구』 30(2011), 394~401쪽; 「崔氏政權 내부의 對蒙和議論者」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景仁文化社, 2012).

79) 『동안거사집』 행록 4, 「빈왕록병서」, “其書狀官 則兩府點望 而上輒勅改望者至三 諸相令都堂執事閱奏曰 參外文儒之有才望者 皆已舉盡 唯前式目錄事李承休以身天官守 不敢望 上曰 但以才舉 何關職散 於是諸相欣然承命 即便奏下”.

80) 이형우, 앞의 논문(2012), 289~290쪽.

81) 明平孜, 「이승휴의 『賓王錄』 연구」 『漢文學論集』 28(2009).

82) 『동안거사집』 행록 4, 「빈왕록병서」, “比及還朝 上大悅 喚一行內殿賜宴 自宰臣下及打軍 頒玉粢 有差冊侯邱爲特進守大師開府儀同三司上柱國順安公 勅入表草而覽之 拜予爲雜職署令兼都兵馬錄事 因此濫得虛名 豈以才爲 蓋天幸也”; 『고려사』 권106, 열전 19 제신, 이승휴전, “及還 王大喜 賜米三十石 徵覽所著詩文 嘉嘆之”.

83) 김승룡, 「元干涉期 高麗知識人の 現實認識 試考 - 李承休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창간호(2000), 299쪽; 앞의 논문(2014), 492쪽.

84) 이형우, 앞의 논문(2012), 293쪽.

85) 『제왕운기』 上, “日月昞昌爭奈何 汝水煙沈空鼎沸 惟吾上國大元興 遍使黔蒼成疊疊 巍巍蕩蕩無能名 我君同德揚光 彼 蹄航萬國竟來臣 禹貢山川皆執贄 土地之廣人民衆 開闢已來無有譬”.

86) 『동안거사집』 행록 4, 「賓王錄」 9월 25일자 내용, “漢帝臨軒五賜卮 一行光彩耀華夷 …”.

87) 김보광, 앞의 논문(2017), 180쪽.

뵈혀 다시 入元한 바 있다. 이 시기 고려는 원으로부터 자신들의 풍속을 유지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다.⁸⁸⁾ 그리고 원 세조는 이승휴가 재차 방문하자 다시 고려에 칙서를 내려 “무릇 고려의 祖宗이 정한 제도를 실추하지 말고 옛 제도를 좇아 행하라”⁸⁹⁾고 하였다. 훗날의 일이긴 하나 이승휴의 아들 李衍宗이, 忠肅王이 辮髮과 胡服을 하고 입궁하자 ‘先王의 제도’가 아닌 점을 들어 본받지 말라고 조언했다는 일화⁹⁰⁾도 염두에 둘 일이다.

이처럼 당시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직시한 위에서 조국의 중흥을 위한 고민이 담긴 저서가 『제왕운기』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역대 역사를 짚어본 다음 그에 짝하는 우리나라의 그것을 소개한 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역시 중국에 버금가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음을 보여주기에 위함일 것이다.⁹¹⁾ 단군을 중심에 두고 이후 등장한 모든 정치체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종적 배치와 그 끝에 고려라는 일통왕조가 자리 잡은 체제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짐작할 수 있겠다. 『제왕운기』가 몽골의 압제에 처했던 상황에서 한국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주적 의식을 드날린 사서로 평가⁹²⁾받았던 데에는 이와 같은 체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폈던 이승휴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저항적 민족의식 표현⁹³⁾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객관적 현실 인식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통해 고려 왕실에 대한 자기 자신의 흔들림 없는 충정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정치에 입문한 문신이요, 유교 관리였다. 스스로 ‘유학을 업으로 삼았다’[業已爲儒]라고 밝혔듯이,⁹⁴⁾ 언제나 ‘儒者’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⁹⁵⁾ 『제왕운기』가 국가와 국왕을 중심에 두었으며, 이를 위협한 자들을 크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본조군왕 세계연대에서 본문의 형태로 거론된 목종 대의 金致陽, 인종 대의 李資謙, 의종 대의 鄭仲夫·李義旼, 원종 대의 林衍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창업의 공신인 태조 대의 배현경·홍유·복지겸·신승겸, 김치양을 제거한 康兆 등 고려 사직의 변영과 수호에 기여한 자들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⁹⁶⁾ 이와 관련하여 본조군왕 세계연대의 가장 끝에 있는 분주의 내용이 주목된다.

{… 어떤 이가 비난하며 말하기를 “그대가 『제왕운기』를 편수함에 모두 7언으로 敍事하다가 本朝에 이르러서는 5언으로 서사한 것은 어찌된 것인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자 (내가) 대답하였다. “시를 지을 때에는 5언으로 시작하여 7언으로 끝내는 것이다. 지금 대저 시를 지은 뜻이, 본조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으려는 데 있으니, 대개 공자께서 『春秋』를 지으신 뜻과 같다.”⁹⁷⁾

88) 『元高麗紀事』世祖, 中統 元年 6월, “復降詔諭佛曰 卿表請附奏六事 一皆允俞 衣冠從本國之俗 上下皆不更易 …”.

89) 『고려사』 권106, 열전 19 제신, 이승휴전, “帝命丞相勅曰 卿既襲爵爲王 往就國 凡爾祖宗定制 毋或墜失 依舊行之”.

90) 『고려사』 권106, 열전 19 제신, 이승휴 附 이연종전, “王用元制 辮髮胡服 坐殿上 衍宗欲諫 候于門外 王使人問之曰 願至前面陳 既入 辟左右曰 辮髮胡服 非先王制 願殿下勿效 王悅 卽解辮髮 賜衣及褥”.

91) 車長燮, 「帝王韻紀에 나타난 李承休의 歷史觀」 『李承休研究論叢』(三陟市, 2000), 181쪽.

92) 劉璟娥, 「李承休의 生涯와 歷史認識 - 『帝王韻紀』를 中心으로」 『高麗史의 諸問題』(三英社, 1986), 517쪽.

93) 金泰永, 「歷史學」 『한국사』 8(국사편찬위원회, 1974), 288쪽.

94) 『동안거사집』 雜著 1, 「村居自誠文」.

95) 변동명, 「이승휴」 『韓國史市民講座』 27(一潮閣, 2000), 132쪽.

96) 이에 대해서는 김남일, 「이승휴의 역사관과 역사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1(2005), 29~34쪽.

97) 『제왕운기』 下, 본조군왕세계연대, “[… 或難曰 子之編修帝王韻紀 皆以七言敍事 而至於本朝 則用五言者何也 其有指乎 答 且詩之作 始於五言 而終於七言者也 今夫制作之意 始起於本朝 故終之以所起之始 蓋夫子修春秋之志也”].

서두에서 『제왕운기』의 체제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중국 역사를 소개한 상권과 고려의 前代史를 정돈한 하권의 동국군왕개국연대는 7연시로, 고려의 역사 흐름을 안내한 본조군왕세계연대는 5연시로 쓰였다고 하였다. 누군가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이승휴가 ‘制作’의 목적이 ‘본조’의 역사를 알리는 데에서 비롯했다고 변호한 대목이다. 다시 말하여 『제왕운기』의 강조점은 ‘고려 역사’를 기술한 본조군왕세계연대에 있으며, 그 때문에 여기에서만 5연시로 달리 기술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춘추』의 뜻과 같다고 하였다. 이미 이승휴는 상권의 서문에서 『제왕운기』를 ‘춘추의 필법’에 따라 쓴다고 밝힌 바 있다.⁹⁸⁾ 즉, 이 책은 ‘왕’이 읽을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끝내 ‘고려왕조의 신화’였던 것이다.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보이는 후고구려 인식이 『삼국사기』의 그것과 공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들에 있다고 생각한다. 고려는 왕건을 중심으로 한 궁예 휘하 諸將의 ‘쿠데타’가 성공하여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출범한 왕조였다. 이들은 이를 ‘義起’라 천명하였지만, 사실 신화된 자로서 군주를 죽인 ‘以臣殺(弑)君’의 전형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려 개국에 개입한 자들은 그들이 흡수한 이전 정권의 실정과 비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創國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에 태조에게 항거한 견훤과 궁예는 “그들의 일생을 허비하여 舊新羅의 전통적인 세력에 타격을 가하여 왕건이 대두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⁹⁹⁾해준 보조자이자 태조에 의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흉적으로 규정되었다. 즉, 이들은 “고려 건국을 위한 기초 공사를 하여 주었음 따름”¹⁰⁰⁾이었고, “暴虐으로써 스스로 墓穴을 판 것이나 다름 없었”다.¹⁰¹⁾ 그리고 고려 건국기부터 형성된 이러한 인식이, 태조를 존숭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고 고수했던 김부식을 비롯한 『삼국사기』의 편찬진들에게 수용되었던 것이다.

‘고려’라는 토양에 있는 자들에게 태조는 그들이 딛고 서 있는 고려를 있게 한 표상 그 자체이다. 고려에서 창건주 태조는 ‘신성불가침’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승휴에게도 ‘고려의 신화’로서 태조의 행위를 변호해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것이 몽골[원]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출현과 그로 인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수용’의 맥락에서 궁예와 후고구려의 자취가 『제왕운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한다.

98) 『제왕운기』 上, 并序, “其善可爲法 惡可爲誠者 輒隨其事而春秋焉”.

99) 金哲垞, 「後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 『韓國古代社會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365쪽 ; 「弓裔와 甄萱」 『韓國文化史論』(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152쪽.

100) 丁仲煥, 「高麗建國考」 『東亞論叢』 3(1966), 108쪽.

101) 李丙燾·金載元, 『韓國史 -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721~722쪽.

IV. 맺음말

『제왕운기』는 일연의 『삼국유사』와는 달리 별도의 조목을 두어 후고구려의 사적을 배려하였다. 『삼국유사』 기이편에서 후삼국 가운데 오직 후고구려만을 편제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이를 통해 궁예와 후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던 일연이었음을 생각했을 때, 『제왕운기』가 보여준 ‘수용’의 맥락은 우선 그 자체로 주목해야 하며 다른 사서와의 비교·검토 및 그의 생애 추적 등을 통해 그가 그렇게 한 이유나 맥락의 탐색이 이루어져야하는 당위를 여기에서 찾은 것이다.

『제왕운기』의 해당 기록들을 살펴보니, 이승휴는 『삼국사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삼국사기』가 전하는 후고구려사와 그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답습하였다. 그가 옛 후고구려의 영역을 유람하면서 당시의 지역민에게 전해들은 정보를 소개한 점 정도를 제외하면, 궁예와 후고구려의 사적 대부분이 『삼국사기』 궁예전의 내용으로부터 의미 있게 벗어나있지 않다. 여기에 이들의 역사적 의의를, 신생 왕조의 창업을 위해 백성들을 잘 갈무리하여 태조에게 온전히 바친 것으로 귀결한 점에서 『삼국사기』의 인식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이승휴 역시 후고구려와 궁예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사실 고려 왕조가 지속되는 한 후고구려와 궁예에 대한 우호적 시선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부정적 인식의 형성 계기마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일차적인 논점이 있다. 일연이 몽골[원]의 침략에 당해 그 적대감을 후고구려의 과거 행적에 투영해 민족사의 전체 줄기에서 후고구려를 ‘배제’했다면, 이승휴는 몽골[원]의 힘을 인정한 위에서 태조가 이룩한 고려만의 독자성을 강조하여 조국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충절을 내보이기 위해 후고구려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거의 같은 시기, 후고구려에 대해 그와 같은 적대감이나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방식의 ‘양면성(이중성)’에 주목해보았다.

참고문헌

『高麗史』 『動安居士集』 『孟子』 『牧隱詩藁』 『三國史記』 『三國遺事』 『氏族源流』 『元高麗紀事』 『元史』 『典故大方』 『帝王韻紀』

- 강재광, 「金俊政權의 條件附 對蒙講和 체결과 그 歷史的 性格」 『한국중세사연구』 30(2011)
-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景仁文化社, 2012)
- 고명수, 『몽골-고려 관계 연구』(해안, 2019)
- 郭丞勳, 「『殊異傳』의 撰述本과 傳承 연구」 『震檀學報』 111(2011)
- 김남일, 「이승휴의 역사관과 역사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1(2005)
- 김보광, 「『제왕운기(帝王韻紀)』, 새로운 역사 인식의 등장」 『내일을 여는 역사』 69(2017)
- 金塘澤, 『高麗武人政權研究』(새문사, 1987)
- 김승룡, 「元干涉期 高麗知識人の 現實認識 試考 - 李承休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창간호(2000)
- 김승룡, 『고려 후기 한문학과 지식인』(지식을만드는지식, 2014)
- 金潤坤, 「羅代의 寺院莊舍 - 浮石寺를 중심으로」 『考古歷史學志』 7(1991)
-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金哲垞, 『韓國文化史論』(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金泰永, 「歷史學」 『한국사』 8(국사편찬위원회, 1974)
-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사계절, 2000)
- 明平孜, 「이승휴의 『賓王錄』 연구」 『漢文學論集』 28(2009)
- 박용운, 『『고려사』 백관지 역주』(신서원, 2008)
- 박인호, 『조선시기 역사가와 역사지리인식』(이회문화사, 2003)
- 박인호, 「『제왕운기』에 나타난 이승휴의 역사지리인식」 『朝鮮史研究』 18(2009)
- 박인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2011)
- 邊東明, 「李承休의 『帝王韻紀』 撰述과 그 史書로서의 性格」 『震檀學報』 70(1990)
- 변동명, 「이승휴」 『韓國史市民講座』 27(一潮閣, 2000)
- 邊東明, 「李承休의 生涯와 著述」 『震檀學報』 99(2005)
-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편, 『한국고대사 자료로서의 제왕운기』(세창출판사, 2019)
- 吳永淑, 「泰封國形成과 弓裔의 支持基盤」,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85)
- 劉璟娥, 「李承休의 生涯와 歷史認識 - 『帝王韻紀』를 中心으로」 『高麗史의 諸問題』(三英社, 1986)
- 柳柱姬, 「李承休의 生涯」 『李承休研究論叢』(三陟市, 2000)
- 윤은숙, 「大元 使行을 통해 본 李承休의 현실 인식」 『인문과학연구』 36(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이도학, 『궁예 진훤 왕건과 열정의 시대』(김영사, 2000)
- 이강래, 『三國史記 形成論』(신서원, 2007)
- 이강래, 『한국 고대의 시선과 시각』(주류성, 2021)
- 李基白,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意義」 『創作과 批評』 41(1976)
- 李基白 外,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三星美術文化財團, 1976)
- 李基白, 「三國遺事 紀異篇의 고찰」 『新羅文化』 1(1984)
- 李楠福, 『高麗後期 新興士族의 研究』(景仁文化社, 2004)
- 李丙燾 金載元, 『韓國史 - 古代篇』(乙酉文化社, 1959)
- 이승한, 『쿠빌라이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푸른역사, 2009)
- 李益柱, 「高麗 對蒙抗爭期 講和論의 研究」 『歷史學報』 151(1995)
- 李貞薰, 「고려시대 금과의 대외관계와 同文院」 『사학연구』 119(2015)
- 이형우, 「13세기 고려 지식인 이승휴의 對元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34(2012)
- 정구복, 「이승휴의 역사관」 『韓國史學史學報』 21(2010)
-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역주 삼국사기 4』(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丁仲煥, 「高麗建國考」 『東亞論叢』 3(1966)
-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푸른역사, 2007)
- 車長燮, 「帝王韻紀에 나타난 李承休의 歷史觀」 『李承休研究論叢』(三陟市, 2000)
- 崔南善, 『新訂 三國遺事』(三中堂, 1943)
- 韓永愚, 『朝鮮前期史學史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 홍창우, 「『삼국유사』의 후고구려 인식」 『歷史學研究』 62(2016)
- 홍창우, 「『삼국사기』 후고구려·궁예 관련 기록의 계통 검토」 『한국고대사담구』 27(2017)

『제왕운기』의 후고구려 인식- ‘수용’과 ‘배제’의 관점에서 - (홍창우) 의 토론문

강문석(한국학중앙연구원)

홍창우선생님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으면서 홍창우선생님이 쓰신 논문들을 다수 찾아보았습니다. 열심히 궁예와 후고구려에 대하여 연구하신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필자도 석사논문을 궁예정권에 대하여 썼는데, 계속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점을 홍창우선생님의 논문들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홍창우선생님이 이 논문을 쓰게 된 원인은 『제왕운기』에는 후고구려기가 있는데, 『삼국유사』기이편에는 궁예와 그가 세운 후고구려만이 기이편의 서술 대상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충렬왕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두 책은 상반된 후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데, 저자인 이승휴가 『제왕운기』에 왜 후고구려기를 넣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이 논문을 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승휴의 후고구려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제왕운기』에 나오는 후고구려 관련 기록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승휴가 후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제왕운기』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구려기의 내용이 『삼국사기』궁예전의 줄거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궁예의 아버지를 경문왕으로 본 것, 궁예가 후고구려를 890년에 세운 것으로 본 것, 궁예의 첫 도읍지가 금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왕운기』동국군왕개국연대 후고구려기 외에 『제왕운기』본조군왕세계연대 역대기 기록에서는 왕건이 쿠데타를 할 때 따르는 군인이 3000명인데, 『삼국사기』궁예열전에서는 미리 기다린 군인이 만명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휴가 『삼국사기』의 인물평가를 따르는 것은 견훤과 경순왕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제왕운기』 동국군왕개국연대 후백제의 견훤 평가, 『제왕운기』 동국군왕개국연대 신라기의 경순왕에 대한 평가가 『삼국사기』견훤전과 신라본기 경순왕부분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승휴가 『삼국사기』의 후고구려 인식을 가감 없이 받아들인 이유를 이승휴의 생애를 분석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승휴가 관료 겸 유학자로 고려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을 중요시한 것을 주요 이유로 보았습니다. 이승휴가 관료인 유학자로서 경순왕이나 견훤, 궁예를 보는 시각은 이전의 관료겸 유학자인 김부식과 비슷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려는 왕건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의 ‘쿠데타’가 성공하여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출범한 왕조였는데, 이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궁예는 걸주같은 폭군이고, 왕건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인 견훤, 왕건에게 전쟁에서 진 후 항복한 후백제의 신검도 폭군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논지는 이승휴가 고려의 관료겸 유학자로 고려왕조의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왕운기』에 『삼국사기』궁예열전의 시각을 계승한 후고구려기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토론자로서 이러한 논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역할로 몇가지 지적을 한다면, 먼저 발표문 1쪽 4번째 줄의 ‘그들의 지리적 환경을’ 을 ‘고려의 지리적 환경을’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문 5쪽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후고구려와 관련하여 ‘890년’을 기년으로 하는 그 어떠한 사적을 적어도 『삼국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있다. ... 그렇다면 『제왕운기』 편찬 시점인 13세기 후반에는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에 대해 『삼국사기』와는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이종의 자료가 존재했었고, 무엇인지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이승휴가 확보해놓은 상태였던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왕운기』 후고구려기에서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연대를 890년으로 본 것을 이승휴가 『삼국사기』와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쓴 것으로 보았는데, 무엇인지는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승휴는 『제왕운기』 후고구려기에서 후고구려의 첫 번째 서울을 금성이라고 하였고, 그 근거는 금성에 갔을 때 들은 금성 사람들의 전승이라고 하였습니다. 궁예가 890년 후고구려를 세웠다는 것도 금성 사람들의 전승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발표문 9-10쪽에서 『제왕운기』신라기와 후백제기 경순왕과 견훤에 대한 부분 중 경순왕은 청태2년(935) 겨울에 고려에 항복하였고, 견훤은 청태3년(936) 봄에 고려에 귀의하였다는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제왕운기』에서 경순왕이 935년에 항복하고 견훤이 936년에 고려에 귀의한 것은 『삼국사기』연표의 연대와 일치합니다. 경순왕이 935년 겨울에 고려에 항복한 것은 『삼국사기』신라본기의 연대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견훤열전에서 견훤이 고려에 귀의한 해는 청태2년(935) 6월입니다. 발표문 10쪽 3번째 줄에 ‘이보다 1년 앞서’라고 하였는데 ‘1년’ 부분에 각주로 사료비교한 것을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부족한 저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논문을 잘 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주시십시오.